



[해설] 육군 ROTC 지원자 늘리려 경쟁률 부풀렸다 03



Economy

코스피	2285.80 (+12.93)	코스닥	808.28 (-0.61)
금리 (우대금리)	2.11 (+0.01)	환율 (원/달러)	1112.20 (-3.70) (9일)

#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한 금감원장

##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소비자 보호·감독강화 방침 4분기부터 종합검사제 시행 노동이사제·키코 등 재검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제가 부활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논란도 재검토시켰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업무 청사진은 소비자보호와 감독 강화에 방침이 짙었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금융사와의 전쟁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순진영 기자

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된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나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그는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와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제2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와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그는 “쉽지 않은 노사관계 해결하기 위해서가 많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회란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社告



###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 북방경협 바람 타고 동북아 물류 새 시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09~12시(오찬 제공)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 1층)
- 주 최 : 메트로경제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지엠(GM)이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9일 사장실을 점거했다. 정부와 GM이 상생협력 M O U를 맺으며 한국지엠이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단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9일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젠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근로자 40여명이 사장실과 복도에서 농성 중이며 70여명이 공장 안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는 한국GM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로 잔류 인력 680명 가운데 생산직 200명이 전환 배치되고 나머지 480명에 대해 3년간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만약 직접고용을 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GM 관계자는 “무급 휴직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도급업체 직원들과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캡생 사장이 그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과다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원 기자 ysw@



文 대통령, 인도 ‘악샤르담 힌두사원’ 방문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여름 분양 후끈... 2만여 가구 공급 ‘역대 최대’

(7~8월)

전국 20곳서 2만1341가구 수도권만 1만여 가구 달해

무더위에도 분양 열기가 지속된다. 10대 건설사가 통상 분양 시장 비수기인 7~8월에도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부동산규제 등으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 영향도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7~8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20개 단지, 2만1341가구에 이른다. 컨소시엄, 주상복합, 임대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7~8월 비수기 분양물량만 놓고 보면 올해가 역대 최대다. 이전 최고점이었던 2017년 1만5738가구와 비교해도 35% 더 많다.

2005년 이후 연도별 7~8월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2005년 4861가구 ▲2006년 7635가구 ▲2007년 1만444가구 ▲2008년 2058가구 ▲2009년 1566가구 ▲2010년 4588가구 ▲2011년 5353가구 ▲2012년 9839가구 ▲2013년 4652가구 ▲2014년 3145가구 ▲2015년 1만2868가구 ▲2016년 12868가구 ▲2017년 1만5738가

구다.

분양물량이 7~8월에 대거 몰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월별 10대 건설사 공급 계획 물량을 보면 ▲1월 2686가구 ▲2월 5344가구 ▲3월 5025가구 ▲4월 1만808가구 ▲5월 8504가구 ▲6월 6647가구 ▲9월 1만3578가구 ▲10월 4045가구 ▲11월 1만6520가구 ▲12월 6495가구다.

연말까지 총 6만1979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7~8월에만 전체의 34%가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 분양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7~8월 10대 건설사의 분양물량 중 수

도권에서만 12개 단지, 1만2431가구(12% ↑)가 나온다. 이외 5대 광역시에서 4곳, 5018가구(24% ↑)가 분양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선 4곳, 3892가구(22% ↑)가 공급된다.

분양 물량이 7~8월에 쏠린 이유는 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등으로 상반기 계획 물량의 일부가 하반기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가 전망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그 전에 물량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찾잔속 태풍’ 그친 종부세 개편... 집값 다시 슬금슬금

##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 〈4〉보유세 초강수?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수위 낮아져  
정부안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후퇴  
세수효과도 권고안보다 3000억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 것.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 ‘찾잔속 태풍’이 될 것 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모습이다.

#### ◆ 초강수일 줄 알았는데...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확정된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아닌 자산 과세의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개편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100% 인상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재산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2.4억원) (17.1억원)	16.5억원 (6억원) (23.6억원)	24억원 (12억원) (34.3억원)	35억원 (20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75	187	554	1,357
	개정 80	215	713	1,790
	증감 +5 (6.7%)	+28 (15.0%)	+159 (28.7%)	+433 (31.9%)

〈3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과표) (시가)	12억원 (4.8억원) (17.1억원)	16.5억원 (8.4억원) (23.6억원)	24억원 (14.4억원) (34.3억원)	35억원 (23억원) (50억원)
종부세	현행 150	334	773	1,576
	개정 159	507	1,341	2,755
	증감 +9 (6.0%)	+173 (51.8%)	+568 (83.5%)	+1,179 (74.8%)

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 이 대상이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0.25~1%포인트 올렸다. 다만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 유지를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대부분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이기 때문.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종부세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세 번째 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권고안도 예상했던 ‘초강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를 거치며 한 단계 더 툰다운(Tone down)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돼 도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17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3주택자는 내년에도 각각 종부

세(농어촌특별세)를 5만원, 9만원만 더 내면 된다. 23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증가분은 1주택자 28만원, 3주택자 173만원에 그친다. ◆집값 슬금슬금 ‘찾잔속 태풍’?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91%(24만8000명)가 제외되는 셈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약 2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세율이 오르지 않는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에 영향을 받는 규모도 1만1000명에 불과하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도 7422억원으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대치(1조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개편안이 ‘찾잔속 태풍’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홍정훈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기재부 확정안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별도합산 토지 세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간사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개혁”이라며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가 감면돼 정부가 담은 기본 취지조차도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전주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윤석모 연구원은 “이미 보유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느 정도 예고됐던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커졌다”라며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만 집을 내놓고, 부자들은 가격이 재조정될 때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 1면 ‘금융감독혁신...’서 계속

## ‘노동이사제’ 추진 금융위와 갈등 예고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김갑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선임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양보형,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은 빠졌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권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보호가 일정한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야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

## 세계 증류주 판매량 1위는 ‘진로’... ‘처음처럼’은 6위

### 英 주류시장 분석업체 IWSR 100대 주류 중 위스키가 29개

하이트진로의 ‘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증류주(spirits)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6위에 오르는 등 2개의 한국 브랜드가 판매 상위 10대 증류주에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의 주류시장 분석기관인 IWS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증

류주 판매 순위를 집계한 결과 진로가 9리터(l) 통을 기준으로 7천591만개가 판매돼 전 세계 브랜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진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면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2위 브랜드와 격차가 4천400만통에 달한다고 IWSR은 밝혔다. 지난해 증류주 판매순위 2위는 태국 ‘타이 베버리지’의 ‘루앙 카오(Ruang Khao)’ 브랜드로 9l 통 기준 3천175만개가 팔렸다. ‘루앙 카오’는 전년 3위에서

지난해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2016년 판매 2위였던 ADB의 인도 위스키인 ‘오피서즈 초이스(Officer’s Choice)’가 지난해 3천151만통이 판매돼 3위를 기록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브랜드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2천551만통이 팔려 6위에 올랐다. 이들 주류가 모두 지역에서 인기를 얻는 제품인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주류 중에서는 디자이오의 보드카인 ‘스미노프(Smirnoff)’가 2천563만통의 판

매량을 기록해 가장 높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미노프’는 지난해 155개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카치 위스키의 대명사인 ‘조니 워커(Johnnie Walker)’ 브랜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 늘어나면서 12위, ‘바카디럼(Bacardi rum)’이 13위, ‘잭 다니엘(Jack Daniel’s)’ 위스키가 14위를 각각 차지했다. 술의 종류별로는 위스키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보드카(19개), 럼(6개) 등으로 집계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훼손된 갯벌 5년간 14개소 3km<sup>2</sup> 복원... 195억 가치 되살린다

### 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km 갯벌 물길 회복시킬 것 어업증진·생태관광 등 기대

정부가 연간 195억원에 달하는 갯벌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갯벌 3km<sup>2</sup>를 복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km<sup>2</sup>, 물길회복 3.4km)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명노현 해양생태과장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

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km<sup>2</sup>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km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동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을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

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현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정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장교임관 특채 등 취업메리트 줄자... 대학생들 '학군사관후보생' 외면

# 육군, ROTC 지원자 늘리려 경쟁률 부풀렸다

(2014년)

3.7대1 → 6.09대1 부풀려 발표  
면접안본 인터넷 원접수까지 집계  
이듬해 경쟁률 늘어 '홍보 효과'

육군이 지난 2014년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률을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면접 전형에 참여하지 않은 인터넷 원접수자까지 집계에 포함시켜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14년 4월 15일 육군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요청에 따라 2014년 ROTC 경쟁률이 6.09대 1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육군학생군사학교가 보유한 관련 기록을 확인했더니 당시 경쟁률은 3.7대 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육군 발표에 따라 주요 신문들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경쟁률이 상승했다', '경쟁률 집계와 분석이 이뤄진 1994년 이래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대졸 취업난 때문에 장학금 혜택과 졸업 후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교(소위) 임관 등의 혜택에 따라 ROTC 인기가 높아진 경쟁률 상승의 근거로 꼽혔다.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선발 인원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공보실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2014년 경쟁률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인터넷접수 지원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보도 내용이 온라인 기사로 검색되는만큼, 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등에 대해 내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률 뺀 뒤 발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육군이 발표한 2012년과 2013년 경쟁률은 각각 3.22대 1과 3.

57대 1로 인터넷 접수자를 제외했는데, 유독 2014년 경쟁률만 인터넷접수자를 포함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2015년(3.6대 1)과 2016년(3.8대 1)까지 경쟁률이 상승해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경쟁률 2.7대 1...2011년 이후 최저 본지가 확인한 육군 ROTC 경쟁률은 최근 9년 간 3대 1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2.7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연도별 경쟁률은 2010년 2.54대 1, 2011년 3.34대 1, 2012년 3.22대 1, 2013년 3.57대 1, 2014년 3.7대 1, 2015년 3.6대 1, 2016년 3.8대 1

1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3.02대 1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올해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졸 취업난과 장교 임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ROTC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기업들의 인재상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ROTC 대다수가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구조로 취업 여건이 예전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경영학과 A 교수는 "과거에는 시키는 일만 잘하는 인재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이 ROTC 등 특채 선발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 등 기업 내외부 환경 변화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ROTC 출신에 대한 취업 여건은 과거 10여년 전과 비교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1997년 초임장교로 임관한 ROTC 출신 손 모(45) 씨는 "2~3기수 위 선배들의 경우에는 초임장교 임관전에 3~4개 기업들로부터 제대 후 취업을 약속 받은 뒤 의무복무 이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예전엔 기업들이 군대 경력을 인

정해줬고, ROTC는 따로 장병공개모집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경력 인정도 잘 안해주고, 특채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후보생 선발시 수능성적과 내신 등 석차로 선발하고 주요 대학 위주로 정원을 배분하고 있는 현재 ROTC 선발 체계는 '차별적인 선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주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선발 경쟁률이 낮고 지방 대학의 경우 높아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크다. 이에 육군도 대학별 후보생 정원을 정할 때 전년도 경쟁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측은 경쟁률 하락의 이유로 "기본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자연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연구나 필요하면 외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파악해 10월경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ROTC는 지난 1961년 6월 초급 장교 확보를 위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20만여명이 임관했고 지난 2011년부터 여대생에게도 개방돼 여성 장교도 배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개 대학 학군단에서 1만명의 육·해·공군·해병대 후보생이 재학 중이다. 전·후방 부대 전체 초급 장교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아리아! 배송차량 위치 알려줘”... 유통이 AI를 만나면 ‘서비스혁신’

### 롯데홈쇼핑

빅데이터·AI 적용 상담시스템 구축  
CU-SK텔레콤  
계산대에 '누구'... 질문시스템 도입

차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배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다. 말 한 번으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비스 이용 시간까지 단축하는 셈이다.

인공지능(AI)이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홈쇼핑, 편의점, 호텔, 카페 등 다양한 영역에 접목되면서 개인과 기업간 격차는 줄어들고, 서비스 시장은 한층 다채로워졌다.

롯데홈쇼핑은 9일 음성인식 자동응답 시스템(ARS)과 챗봇을 활용한 상담 가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상담주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음성인식 ARS는 고객의 음성을 인식해 상품 선택부터 결제까지 완료하는 서비스다. 버튼을 입력해 상품을 주문하는 방식에 비해 주문 시간이 60초나 단축돼 이용 편의성이 높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중인 상품을 음성인식 ARS를 이용해 주문할 경우 상품 수량, 배송지 등에 관한 안내에 “네”, “아니오” 정도로 답변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음성인식 ARS의 경우, 주문 빈도가 높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배송지,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축됐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상담원 연결 없이 카탈로그



CU 매장 근무자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이용하는 모습. /BGF리테일



고객 상담 업무를 진행 중인 롯데홈쇼핑 직원. /롯데홈쇼핑



스타벅스가 SK텔레콤 'T맵X누구'에 차차 모바일 서비스 사이렌 오더를 연계해 차 안에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타벅스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 롯데홈쇼핑은 향후 대화형 챗봇 주문 서비스를 비롯한 고객의 성향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은 고객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동시에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최근 상담시스템에 '로봇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적용했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담당 직원은 조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가 등록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고객 상담시간은 20초가량 단축되고, 신입 상담원의 업무 적응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도 최근 업계 최초로 쌍방향 음성 대화형 인공지능 매장 도우미를 도입해 부족한 일손을 돕고, 한층 편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BGF 리테일과 SK텔레콤이 맺은

'AI를 활용한 편의점 유통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CU는 SK텔레콤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누구(NUGU)' 스피커를 계산대 옆에 배치해 직원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인공지능 보이스봇은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매장 직원이 질문하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다. 예컨대, 도시락 재고가 떨어졌을 때 “아리아, CU 배송 차량 위치 알려줘”라고 물으면 “저온 배송 차량은 2개 매장 전에 있으며,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라고 답변하는 형태다. 이밖에 매장 운영 매뉴얼과 가맹본부의 주요 공지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CU는 우선 전국 직영매장 100여 곳에 인공지능 보이스봇 서비스를 도입해 머신러닝(기계학습) 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향후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가정 내 허브 역할을 하던 인공지능은 이제 호텔 이용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지난 1일 공식 오픈한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한국어, 영어 등 2개 국어 음성 인식이 가능한 호텔 전용 KT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를 호텔 157실, 레지던스 137실에 설치했다.

투숙객은 '기가지니'를 이용해 조명과 냉·난방 등 객실 제어, 어메니티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쇼핑, 관광 명소 밀집 지역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해 관광객 맞춤형 '인공지능 컨시어지폰' 서비스를 구축, 길 안내와 데이터 사용, 서울 명소와 맛집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크밸리 리조트도 지난 5월 KT '기가지니'를 활용, 국내 최초 인공지능 콘도로 거듭났다. 리조트 내에서 치킨을 음성 명령으로 배달할 수 있고 음악 감상, 날씨 안내, 주변 맛집 검색, 관광지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투숙객들의 호응이 높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호텔도 3분기부터 SK텔레콤의 '누구'를 객실에 적용, 인공지능 호텔 고객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주문을 완료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

도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X누구'에서 스타벅스의 모바일 주문 시스템 '사이렌 오더'를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운전 중 음성으로 ▲음료 선택 ▲주문 매장 선택 ▲주문 상품 확인 ▲주문 접수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T맵과 연계해 주문 내역을 지정 매장 도착 5분 전 이내에 매장에 전달함으로써 이용자가 매장에서 장시간 상품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는 편의점, 호텔을 기점으로 하반기 B2B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객들은 집 안팎에서 음성인식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고객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는 업계 전반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인수위 없이 회장 오르는 최정우 “소리없이 강하다”



신성장사업 역량 키우기 집중  
27일 임시주총서 정식 임명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

연매출 60조원의 재계 6위 기업인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정우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를 약 20일 앞둔 가운데 조용한 행보로 취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포스코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비서울대 출신의 재무통인 만큼, 내·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 회장의 취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최정우 포스코켄텍 사장은 27일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포

스코 그룹 회장직에 오른다. 지난 6월 23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최 후보는 새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3주가 넘는 취임 준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본사가 있는 포항과 서울 사무실을 오가며 대신 해당 근무자를 통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일선에 관한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다.

이는 권오준 회장이 2014년 1월 공식

취임 전 인수위 성격의 ‘혁신 포스코 1.0’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성대하게 취임을 준비했던 상황과는 상반된다.

최 후보가 입사 후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 경영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기획재무본부장, 가치경영센터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아오며 따라 그룹이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가 취임 이후 철강 사업은 기존 체제 하에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대신 리튬 등 소재·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는 등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보여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 후보가 직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켄텍을 이끌었던 만큼 신성장 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포스코켄텍은 음극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 작업에 돌입해 총 7개 설비를 구축했다. 오는 10월 8·9호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2만

4000톤 체제를 갖춘다.

다만 일각에선 후보 선발 과정에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여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개혁 의지를 보이는 차원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27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교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14일 전인 12일에는 관련 안건이 공시돼야 한다.

한편 최 회장 후보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잡음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포스코바로 세우기(포바세) 시민연대가 최 회장 후보를 횡령 방조,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민우 포바세 시민연대 대표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포스코의 비리 사건 대부분에 최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지만 우선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만 추려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회장 후보가 지난 10년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많은 비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채널로 유명했던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회장 시절 그룹 감사실장(정도경 영실장)을 하며 포스코의 자원의교·대규모 해외공사 등 무분별한 투자를 감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오준 회장 시절에는 시가 5000억원 상당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을 부영에 3000억원에 매각해 최소 2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최 내정자가 그룹 가치경영센터장, 즉 구 조본부장을 지내며 이해 불가능한 거래를 ‘구조조정’을 내세워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가 껌데기만 남도록 만든 최 후보는 조속히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최 후보가 포스코에 끼친 해악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고 포스코가 포피아의 손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잡음을 극복하기 위해선 포스코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ooil.co.kr

## 현대로템 ‘지뢰제거용 전차’ 전투용 적합 판정

지뢰지대 극복·대전차 지뢰 제거 가능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구역에 활용



현대로템이 개발한 장애물개척전차가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를 활용해 지뢰 제거 시험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에 산재된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지뢰제거용 장애물 개척전차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장애물 개척전차는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지뢰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달리는 임무를 맡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장애물 개척전차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같은 해 12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약 3년 반 만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이번 달로 예정된 규격화까지 마치면 체계개발이 모두 완료된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장애물 개척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뢰지대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 넣고 땅을 갈아엎어 묻혀있던 지뢰가 드러나

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

자기감응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된 자기감응지뢰를 터뜨려 무력화하는 성능도 갖췄다.

차량 후미 좌우에는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포식막대 발사 기능을 탑재한 통로 표시장비를 1개씩 장착해 군 병력의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애물 개척전차는 지뢰지대 극복 능력을 바탕으로 약 86만여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지뢰제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문 기자

## SKT,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개척 나섰다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와 MOU  
스마트홈 구축 가능... 시공경쟁력 ↑



조영훈 SK텔레콤 이사장(왼쪽)이 9일 서울 T타워에서 노재근 사단법인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장과 사업활성화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이 9일 사단법인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와 스마트홈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개척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스마트홈 도입 이전에 지어진 주택시장에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는 친환경 인테리어 진흥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설립된 단체이며 170여 개 인테리어 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휴를 통해 기축 시장 내 연간 2000세대 이상의 스마트홈 인테리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홈 인테리어는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시 ▲스마트스위치 ▲플러그 ▲공기질 센서 ▲AI스피커 등의 스마트홈 제품을 함께 설치하는 공법이다.

노재근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장은 “최근 스마트스위치나 플러그, 공기질 센서 등 스마트홈 제품 공급을 문의하는 회원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회원사들의 최첨단 스마트홈 구축이 가능해져 시공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2000년 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또한 2020년 40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가 전국 760만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홈 산업과 인테리어 시장의 결합은 스마트홈의 저변을 넓히고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스마트홈 제품

을 일괄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홈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에코인테리어협회의 대전 소재 친환경 인테리어 체험관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체험 부스를 설치해 스마트홈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인테리어를 회원사와 고객들에게 알린다.

SK텔레콤은 신축 주택시장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5곳을 포함해 총 40여 개 주요 건설사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스마트홈이 적용 완료된 아파트는 26개단지, 2만5000여 세대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효성티앤씨, 기능성 신소재로 글로벌 공략

‘파리모드시티·인터필리에르’ 참가



효성티앤씨 직원이 고객에게 기능성 섬유가 적용된 원단을 설명하고 있다. /효성

효성티앤씨가 기능성 신소재로 글로벌 섬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모드시티·인터필리에르 2018’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수영복, 란제리 및 섬유 소재 전시회다. 올해는 28개국에서 680개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패션업계에서는 합리적 가격, 효율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크로스오버 패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크로스오버 패션은 애슬레저룩과 같이 운동복처럼 편안하면서도 일상생활 패션으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로 기능, 디자인 등이 융합되는 다양한 시도들을 가리킨다.

효성티앤씨는 선명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컬러플러스’, 소독약품에 수영복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하이클로’, 땀냄새와 발냄새를 줄여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프레쉬’를 선보였다. /김유진 기자

## LG 드럼세탁기, 英 소비자 잡지 ‘최고’ 평가

LG전자는 자사 드럼세탁기가 영국 소비자 잡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영국 유력 소비자잡지 ‘위치(Which)’는 자체 실시한 세탁기 성능평가에서 LG전자 드럼세탁기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As good as it gets)”고 평가하며 최고 점수를 줬다.

LG전자가 지난 4월 현지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추천제품으로 선정된 세탁기 총 86종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인 89점을 얻었다. 평가단은 이 제품이 세탁과 행균, 탈수 같은 기본 성능은 물론 저소음과 사용 편의성까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능평가 1위 제품도 LG 드럼세탁기였다. 이번 결과는 LG 전자 프리미엄 세탁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영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LG전자가 이처럼 세탁기에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며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은 LG 세탁기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DD(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덕분이다. /안병도 기자

DD모터는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해 소음, 에너지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세탁통과 모터를 연결하는 별도 부품이 필요 없어 제품이 구조적으로 단순해지기 때문에 내구성도 유리해 프리미엄 세탁기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LG전자는 지난 1998년 세계 최초로 DD모터를 세탁기에 적용해서 상용화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인버터 DD모터, 스팀 등 LG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성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며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IRIS를 이용해 공장기계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대위아

## 러시아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 소개

현대위아 '이노프롬 2018' 참가

현대위아가 러시아 최대 규모 산업박람회인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를 발표한다.

현대위아는 9~12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 '이노프롬 2018'에 참가한다. 이노프롬 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현대위아는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를 러시아 고객들에게 소개한다.

IRI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공장기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공장기계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물론 15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

를 이용해 기계의 온도·습도·유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공장기계를 경남 창원시의 현대위아 기술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대표 공장기계 'XF6300'도 함께 선보인다. XF6300은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기종으로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소에서 개발을 주도한 제품이다. 항공과 의료 분야 등 중소형 정밀가공 시장 수요가 높은 유럽 제조업 시장을 겨냥해 완성했다.

현대위아는 XF6300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모델 'XH6300'과 'LM1800TTSY'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 스마트워치용 아몰레드패널 제패 LGD, 세계시장 점유율 41% 차지

애플 공급패널 1475만대 중 LGD, 지난해 1064만대 출하

지난해 전세계 스마트워치용 AMOLED(아몰레드·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위에 올랐다.

9일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64만대의 스마트워치용 AMOLED 패널을 출하, 총 4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895만대를 출하하면서 2위(34.8%)를 기록했고, 중국 에버디스플레이(417만대·16.2%)와 AUO(147만대·5.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음 중소형 올레드 패널 사업에 뛰어든 중국 BOE(Beijing Oriental Electronics)는 약 38만대(1.5%)로 5위에 올랐다.

한편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용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한 것은 미국 애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한 스마트워치용 올레드 패널은 총 1475만대 수준이다. 이중 70%가 넘는 1060만대를 LG디스플레이가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신제품에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올레드 패널을 탑재할 것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LG와 애플의 제휴에 관

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복수의 외신은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을 200만~400만개 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 보도에 대해 확인하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전세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시장의 강자인 애플을 패널 공급 대상 고객으로 계속 확보할 경우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실적 부진에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삼성리서치, AI 기계독해 능력 국제대회 우승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리서치가 인공지능(AI) 기계독해 능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9일 삼성전자는 삼성리서치가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최한 마르코 기계독해 테스트, 미국 워싱턴대가 진행한 트리비아 테스트에서 잇따라 선두에 올랐다고 밝혔다.

마르코와 트리비아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워드 등과 함께 세계 5대 AI 기계독해 테스트로 꼽히는 대회다. 글로벌 IT 업체들과 각국의 우수 대학들이 참가해 첨단 AI 기술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계독해는 AI 알고리즘이 질문을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해 스스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질문에 대해 여러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가장 알맞은 답안을 스스로 제시한다. 삼성리서치는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한 콘즈넷(ConZNet)이라는 자체 AI 알고리즘을 들고 대회에 참가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삼성리서치 언어이해팀 김지희 상무. /삼성 뉴스룸

강화학습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이다. AI의 핵심인 기계학습 가운데서도 가장 고도화된 학습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리서치 언어이해팀의 김지희 상무는 "실생활에서 이용자들에게 간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함께 제품, 서비스, 고객 대응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 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 여권·차량등록서 농사일까지 AI가 '척척'

코엑스 국제인공지능대전

AI 알고리즘·응용솔루션 등 소개 AR·드론·로봇 등 체험공간 마련

대면 서비스 로봇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람객이 "전시 정보 알려줘"라고 말하면 전시에 관한 사항을 화면에 띄워주고 "주변 상황 어때?"라고 물으니 "전시장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있어요"라고 답한다. "볼빨간사춘기 노래 틀어줘"라고 말하면 음악 재생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퓨로는 화면에 사람의 얼굴을 띄워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이며 응대한다. 병원, 카페 등에서 고객 응대, 아이 교육, 집안 모니터링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AI가 생활 속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AI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논의하는 '국제인공지능대전'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9일 찾은 전시회장에는 AI 알고리즘, 응용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드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 학생, 대학 교수 등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 앞에서 가방, 스마트폰, 수첩 등이 인식되는 걸 보며 생활 속에 들어온 AI를 체감하고 있었다.

친근한 AI 서비스 중 하나인 챗봇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전시회장에서 접한 마인즈랩의 뚜봇은 현재 대구시의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카카오 톡플러스친구 추가를 하고 뚜봇에게 "대구 축제 정보 알려줘"라는 카톡을 보내니



관람객들이 트윈의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이 불량품을 골라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구서윤 기자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 정보를 나열한다. 이외에도 여권, 시정일반, 차량등록, 관한 일을 처리한다.

마인즈랩 관계자는 "원래 공무원이 처리했던 단순 업무를 뚜봇이 처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서비스했던 챗봇은 "엄마한테 만원 송금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알아서 돈을 보내준다. 마인즈랩의 자연어 처리, 대화 처리 등 언어지능 영역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나 SNS대화로 계좌이체, 계좌 조회 등 간단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를 구현했다.

한쪽에서는 AI 드론 체험이 한창이었다. 드론이 사용자의 손을 인식해 움직인다. 어린이 체험자가 드론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자 드론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시동을 걸며 날아올랐다. 두 손을 모으면 드론이 앞으로 다가오고 벌리면 뒤로 날아간다. 손가락으로 브이모양을 하자 사진을 찍어준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보냈다.

회피 엑스티드론 사업부 관계자는 "AI 드론은 10m 정도의 범위에서 손의 움직임을 인식한다"며 "사진을 찍고 싶은 순간에 조종기를 꺼내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이용한 스마트팜에도 관심이 쏠렸다. 트윈의 팜아이는 AI 기술을 통해 농가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AI를 통해 온도, 습도, 광량, CO2 등 온실 환경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하고 이러한 요소의 목표 수치를 온실이 작물과 작물의 생육단계, 시설의 성능 및 노후와 상태까지 고려하고 판단한다.

트윈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구 중 약 25%가 귀농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업에 대한 지식 부족"이라며 "팜아이는 귀농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우수한 농가의 생육작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AI이 패턴을 학습하도록 해 어느 지역에서든 균일한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I 대전에서는 전시회, 체험행사도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9일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10일 'AI의 활용'을 주제로 유저 컨퍼런스가 열리고 AI기술을 드론, 자율주행차, 웹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성과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인 'AI융합 아이디어경진대회'의 결선이 10일 열린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LG전자, 스타일러 스타일링 클래스 열어

패션 인플루언서 등 60명 초청

LG전자가 9일 서울 여의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배우 소유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함께하는 제3회 LG TROMM(트로름) 스타일러 스타일링 클래스를 열었다. 이번 스타일링 클래스에는 다가오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육아맘, 패션 인플루언서 등 총 60명이 초청됐다. 가족들끼리 센스 있게 맞춰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둥이 엄마이자 목소리나는 살림으로 많은 주부들의 워너비 아이코인으로 등극한 배우 소유진과 톱스타



LG전자가 9일 배우 소유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함께하는 제3회 LG TROMM 스타일러 스타일링 클래스를 열었다. /LG전자

일리스트 한혜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자신만의 여름철 의류관리 노하우를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안병도 기자

# “반려동물 덕에 우대금리~” 펫팸족 겨냥 예·적금 봇물

펫코노미 시장 겨냥 금융권 주목  
1·2금융권 예·적금 상품들 출시  
고객맞춤형·생활밀착형 등 다양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1·2금융권이 반려동물 예·적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펫팸족(펫+패밀리)의 눈길을 끈다. 고객 취향을 공략한 생활밀착형 상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2금융권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SBI저축은행은 ‘SBI스타펫 적금’을 선보였다. SBI스타펫 적금의 기본 이율은 연 2.1%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해 인증하면 우대금리를 통해 연 3.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반려견 캐릭터

은행명	SBI저축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상품명	SBI스타펫적금	KB펫코노미적금	위드펫적금
계약기간	12개월	12~36개월	12개월
기본금리	연2.1%	최대 연2.20% (36개월 기준)	최대 연 2.20%
우대이율조건	반려동물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카페에 업로드 인증(+0.2~0.9%)	친구추천(+0.2%)적금계약기간 중 KB국민펫코노미카드 보유(+0.2%)	영업점방문후 동물등록증 제시 (+0.5%)펫다이어리에 사진 5개 이상 등록(+0.5%)
기타 추가 정보	만기이자(세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SBI저축은행 부담)	만기이자(세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KB국민은행 부담)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시 약정 이자율로 해지



찌꼬를 활용한 ‘찌꼬 희망통장’을 개설한 데 이어 반려견 오디션 ‘JT왕왕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JT왕왕콘테스트는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적금상품은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1금융권은 일찍이 반려동물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출시한 KB국민은행은 ‘KB펫코노미 적

금’을 출시했다. ‘KB펫코노미 적금’은 36개월 기준 정액 적금의 경우 기본이율은 2.2%이지만 친구추천을 하거나 적금계좌 계약기간 중 KB국민펫코노미카드를 보유하면 각각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만기이자(세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KB국민은행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위드펫(With Pet)

적금’을 출시했다. 위드펫(With Pet)적금은 1년만기 적금 상품으로 매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동물 등록증 보유시 최고 연 2.0% 이자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치료비를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금리로 해지가 가능하다. 위드펫 적금은 5월 기준 총 6600좌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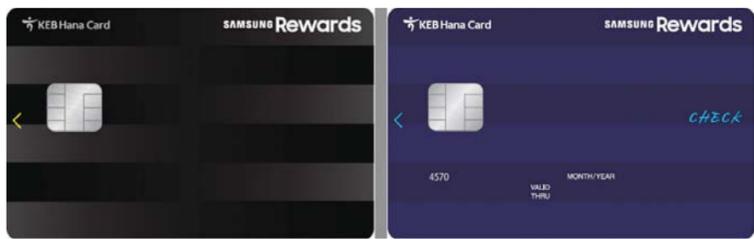
금융권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이유는 먼

저 반려동물시장의 급성장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오는 2020년에는 6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단계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금융권과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비율이다. 대출액 만큼 예금액이 일정부분 증가하지 않으면 예대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펫코노미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추세”라며 “제공할 수 있는 금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고객맞춤형, 생활밀착형 등 차별화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 리워드 하나카드

/하나카드

## 하나카드,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카드 출시

하나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이용 금액의 최대 2%를 삼성 리워드 포인트로 적립하는 ‘삼성 리워드 하나카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 리워드 하나 신용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삼성 페이로 결제 시 1%, 일반 카드로 결제 시 0.5%를 적립해주는 기본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달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삼성 페이로 건당 2만 원 이상 이용 시 1% 추가 적립해 주고, 일반 카드로 결제 시 0.5% 추가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립 서비스와 추가 적립 서비스로 최대 2%가 제공되며 손님들은 월 최대 10만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 리워드 하나 체크카드’는 이용실적 조건 없이, 삼성페이 이용금액(건당)이 1만 원 이상이면 0.5%, 10만 원 이상이면 1%의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리워드 하나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 원이며 ‘삼성 리워드 하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나유리 기자

## 우리은행, 임팩트 투자펀드 ‘50억’ 첫 출자

펀드 총 200억 규모로 조성  
창업벤처기업 투자기반 마련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임팩트 투자 펀드’에 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팩트 투자 펀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크레비스-라임 임팩트 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7월 중 결성되는 국내 최초의 임팩트 투자 펀드로 우리은행은 50억



원을 투자한다.

펀드는 총 200억 규모로 조성되며, 10년간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전체의 25%를 투자해 최대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고,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한국성장금융(65%), 공동운용사인 크레비스파트너스

(3.5%)와 라임자산운용(1.5%)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펀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정의된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의 문제 해결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60% 이상 투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임팩트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임팩트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결정이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임팩트 투자가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미 기자 smahni@

## “속싸개, 손바느질 한땀한땀 만들어 선물해요”

신한銀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이벤트

신한은행은 중·고등학생 고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첫번째 행사는 무연고 신생아들이 사용할 속싸개를 손바느질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속싸개를 만들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신한 청소년 행복바우처를 사용해 포인트 적립 또는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이벤트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다.

기존 행복바우처 사용 고객도 신청할 수 있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SOL(솔), 모바일 앱 등 고객 중 500명에게 봉사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만드는 속싸개는 신생아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뜻깊은 봉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생 고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윤의연 우리카드 부사장(오른쪽)과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이사가 지난 2일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 엘포인트 한도없이 적립 ‘우리카드’ 출시

롯데멤버스-우리카드 전략적 MOU

우리카드가 카드의정적엘포인트(L.POINT)신용 및 체크카드’를 9일 출시했다.

롯데멤버스와 우리카드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엘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카드의정적 엘포인트’신용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엘포인트 0.7%를 한도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 영화, 외식, 커피, 대중교통 등의 업종에는 3%,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쇼핑 업종과 주유 및 여행 및 레저 업종에는 1%의적립이 제공된다.

또한 롯데 계열사에 해당하는 가맹점 일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포인트 외에 엘포인트 1%가 추가 적립되고, 해당 카드를 엘 페이(L.pay)에 등록하여 이용하면 또 1% 적립이 추가된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 비대면 은퇴설계 오픈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 은퇴설계시스템 내 상담예약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8월 말까지 ‘올(All)100 플랜 은퇴설계 희망드림(Dream)’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NH농협은행의 비대면 채널(올원뱅크·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 등)로 은퇴설계시스템에 접속해 자가진단 후 영업점을 방문해 전문가 상담까지 진행된 경우 자동응모 처리된다. 매월 추첨을 통해 100명씩(총 200명)에게 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과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상품마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이창호 부행장은 “은퇴설계가 비대면 상담예약 프로그램 통해 젊은 층부터 은퇴준비에 관심을 갖는 40~50대 연령층까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NH농협은행은 고령화시대 고객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미 기자

#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 “韓·인도 경협, 시작단계… 제조업 넘어 4차산업 꽃 피우길”

## 文 대통령, 삼성전자 인도공장 방문

이재용 부회장 등 300여명 참여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 그룹 계열사 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있는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함께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모디 총리가 인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노이다 신공장을 방문한 것은 외교 전례상 없는 일로, 그만큼 인도가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특별히 예우를 했다는 평가다.

이날 신공장 준공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관계자, 협력사 대표 등 핵심인사 3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연남뉴스

신공장에만 6억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0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해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인도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점유율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이 2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1%의 점유율을 차이로 중국 기업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격려하기 위해 순방 일정 중에 공장을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노이다 공장은 한국과 인도의 50여개 부품회사가 협력하는 양국간 진정한 상생협력의 모델”이라면서 “노이다 공장이 양국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도의 젊은 인구, 지리적 이점, 기초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경공업, 중공업, 첨단 IT까지 이어지는 경제발전 경험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성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이

번 노이다 공장 증설을 계기로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양국 경제 협력의 결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 등과 함께 공장내 신규라인을 둘러봤다.

특히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현지 근로자 2명으로부터 신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휴대폰을 전달받고, 뒷면에는 친필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장관님을 뵈게 돼 반갑다”며 “저는 인도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미래분야로 양국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 정부와 국민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인도 정부 역시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인도 내의 관심이 높다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6.5억弗 투자 인도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

### 文 대통령 방문한 삼성 인도공장은

생산량 월 500만대→1천만대 증가  
2022년 시장 2.5억만대 확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인도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정을 설명하며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 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과 시장 점유율 1%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인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일정이란 의미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다.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친화적이며 투자환경이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이 많아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다. 때문에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꼽혔다.

인도에 1995년 처음 진출한 삼성전자는 1997년 노이다 공장에서 텔레비전 생



작년 4월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갤럭시 S8·갤럭시 S8+ 미디어행사서 현지 언론 관계자들이 제품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 휴대폰 생산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증설을 통해 노이다 공장 휴대폰 생산량은 기존 월 500만대에서 1000만대로 증가한다.

업계에서 인도는 성숙기에 접어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구매잠재력이 크게 남아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1억3780만대 수준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2022년 2억5400만대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다. 현재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 등으로 1위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던 삼성전

자는 작년 4·4분기 샤오미에 1위를 내줬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점유율은 각각 23%와 25%였다. 올해 1·4분기에는 삼성 26.2%, 샤오미 31.1%를 기록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인도 소비자들이 고가 프리미엄폰보다 20만원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생산을 통해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관세 20%를 피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노이다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5월 인도에서 갤럭시 A6·A6플러스를 출시했고 J6·J8 같은 20만~40만원대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중저가폰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韓-인도, ICT 분야 등 교류 확대될 것”

### 文 대통령, 인도 일간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현재 양국의 경제 협력 수준은 시작단계”라면서 “제조업, 인프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ICT), 소프트웨어, 바이오,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에너지, 미래차와 우주분야까지 공동연구와 우수인력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인도의 최대 영문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1838년 창간한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 지식인층이 주 독자층으로 발행 부수만 약 320만부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인도는 첨단 과학기술, 우수한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능력과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한국이 가진 응용기술과 경험, 자본과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력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인도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남방정책’의 비전으로 그 중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유권자 8억 명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연간 7%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2015년엔 경제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다. 이런 추세는 2016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다. 내수시장 규모는 세계 3위권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인도의 이와같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인구 12억 5000만 명에 이르는 인도 시장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인도의 수준 높은 IT 기술과 풍부한 고급인력에 주목하고 인도와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파트너십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제도적 기반인 CEPA(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감으로써 교역·투자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美·中무역 갈등속 인도서 기회 잡아야”

### 김현중 본부장, 뉴델리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최근) 무역갈등을 봤을 때, 지금은 인도 (시장)에 참여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역전쟁인지, 무역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귀국 후에 신중하게 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그 질문과 관

련, 시장 콘텐츠를 다양화(diversification)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4강(미·일·중·러)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G2(미국·중국)로 인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 “공기관, 생명·안전 외주화 안돼… 비정규직 연내 전환을”

**김현미 국토부장관 공기업 간담회**  
2만8000명 정규직 전환 달성 '92%'  
시민참여혁신단 '혁신 계획'도 수립



국토부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적역할 수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도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

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

는 명분으로 외주화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2곳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잠정 전환 계획 인원 2만8000여명 중 2만6000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 전환 결정 달성 비율이 92%에 달한다.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환 결정이 완료된 기관들은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협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기관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도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중조사양성과 항공공학 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운영사별 상품	상품속성	좌석지정	주말사용	이용기간-이용횟수	비고
철도공사	현행정기권	X	X	10일~1개월	제도유지
	① 좌석지정형	O	X	10일~1개월	현행 정기권+좌석지정옵션
	② 기간자유형(주말포함)	O	O	10~30일 내 이용자선택	신상품(좌석지정옵션)
	③ 횡수차감형(모바일 할인카드)	O	O	10~30회(2~3개월 유효)	신상품(좌석·입석·자유석)
SR	현행정기권	X	O	10일~1개월	제도유지
	① 좌석지정형	O	O	10일~1개월	신상품(19년 상반기 출시)
	② 횡수차감형	O	O	10회(15~30일 유효)	신상품(좌석지정옵션)

## 좌석지정형·기간선택형·횡수차감형...

# KTX 정기권 주말도 이용 가능

다음 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주말에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은 9일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횡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국토부·코레일·SR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했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요금을 더 내면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 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서울~천안아산 노선의 경우 정상운임 1만4100원에 좌석지정 비용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의 입석형 정기권이 22만800원인데 비해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27만2300원으로 5만1500원 비싸다.

'기간 선택형(주말 포함)' 정기권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조치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 지정 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 지정형 정기권과 같다. SRT는 이미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횡수 차감형' 정기권도 도입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10~30회 이내(횡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가 출시된다. 철도 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SRT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로 내면 좌석을 지정이 가능하다.

이들 서비스는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TX의 경우 기간 선택형 정기권은 8월, 좌석 지정형과 횡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도입된다. SRT의 경우 좌석 지정형은 내년 상반기, 횡수 차감형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채신화 기자

# “신남방-신동방정책, 韓·印 ‘공동번영’ 이끈다”

**대한상의-인도상의 비즈니스 포럼**  
문재인 대통령, 양국 기업인들 격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인도상의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인도 뉴델리 타지 디플로매틱 엔클레이브 호텔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진행 현대차 사장, 지동섭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선 라세쉬 사 인도상의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장, 라지브 카를 니코코퍼레이션 회장, 시드하스 버라 엑스프로인디아 회장, 지오스나 수리 바라호텔 회장, 라케시 바탈 인도경제인연합회장, 산딕 자조디아 인도상의연맹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

를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외교 정책이 발표되고, 한·인도 간에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한 축인 '공동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세쉬 사 인도상의연합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길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첫 방문은 양국의 강한 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라며 "2015년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인도의 주요 장관들 중 3분의 2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 회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연계로 인도 산업은 한국과의 협력에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다"며 "한국의 과거 발전 사례와 같이 인도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 인도 해외투자 증가 및 자동차, 전자, 섬유, 건설, 인프라 분야의 제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

심국일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 성장과 광대한 시장을 보유한 기회의 땅"이라면서 "대한상의는 양국 기업인들 간의 교류를 늘리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72개사, 13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1~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을 9일 공개했다.

사절단에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희 LG 부회장, 정택근 GS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10개 대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에서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우오현 SM 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박해린 옴니시스템 회장 등이 동행한다. 이 밖에도 메쉬코리아, 타임교육, 모담코리아 등 경쟁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다수 참가한다.

사절단은 12일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음식점 점주들 “1분기보다 경기 어려워”

러시아 월드컵 영웅 '치킨집' 특수  
올해 2분기 음식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1분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68.98로 1분기 69.45보다 0.47p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 간(현재)의 체감 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 경기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2분기 경기지수는 1

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 러시아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은 치킨 전문점이 77.26을 기록해 1분기 69.78보다 7.48p나 급상승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77.34), 서양식 음식점업(77.27) 등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김밥 전문점(66.91)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73.77)와 세종특별자치시(72.93)의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62.35)와



월드컵 영웅과 치킨.

/연합뉴스

울산광역시(63.25)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3분기 경기전망은 74.44로 조사돼 2분기보다 5.46p 올랐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많다는 뜻이다.

비알코올음료점업(84.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81.94), 치킨 전문점(81.13), 외국식 음식점업(84.38) 등 업계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 윤석헌의 금융개혁 마이웨이, 독선인가? 철학인가?

# 1 법원 판결난 키코 재조사... 암보험 등 일괄구제

# 2 '기울어진 운동장'... 내부거래 등 엄중 제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에 있어서는 금융사와 '전쟁' 방침을 밝히며, 관련 대표 민원인 키코(KIKO)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내놓으며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과 분쟁이 많았던 암보험,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소비자 편에 서기로 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고,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는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약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

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 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 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3 삼바 조치안 원안고수... "증선위 수정요구는 참고만"

"이슈 자체 흔들릴 가능성 원안에 집중해 심의 부탁" 증선위 수정 요구에 선 그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 견해가 있었을테니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문제가 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제출한) 당초 조치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며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증선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증선위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이슈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는 감사정보 등에 대한 공개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

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 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사 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정보공개 확대 방침은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4 분식회계 적발 계좌추적권 도입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해야"

금감원, 대기업 회계 밀착 감시 공매도제 악용 행위 기획조사도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회계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곧바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외국인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해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 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50억원 이상 고의 회계 분식은 회사 규

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조치하고 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자료요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각각 필요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 적용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 판매 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기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경영계 6단체 기자회견

영업익 고려, 합리적 수준서 결정

경영계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익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

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단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들간 끌고다니며 각목으로 때리고 성추행 범죄에도...

# “아직 어렵다”... ‘예방이 우선’ 답변만?

## 청소년 범죄, 막을 길 없다

靑 게시판에 법 개정 청원 잇따라  
법조계 “잔혹범죄 실행강화” 목소리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법에 형량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할 지 주목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의 결정에 다루는 32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 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불안정한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일어나므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 ◆가해자는 ‘잔인’, 피해 가족은 ‘울분’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교활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학생 B양 등 10명으로부터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모집한 B양 등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A양이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끼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양 가족은 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가해자 4명을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 가족의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9일 1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달 이내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원 인원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 ◆가정에서 안 하는 ‘예방’... 실행 강화가 답

앞서 청와대가 형량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 폭력 예방을 밖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 소재 학원 강사 신모(30)씨

는 “형량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상당수가 자식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려 든다”며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역시 ‘사회의 최소 단위에서 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를 만 10세~12세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현재 만 14세~19세 소년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도 사안에 따른 특별법을 양산하지 말고, 형법 등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9일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헌법재판소가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음성안내와 점자키패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기기 조작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발급기는 재판소를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와 국세증명, 토지·건축·차량관련 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를 일반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범중 기자

# 백운규 “올 여름, 하계수급이래 최대 공급여력 확보”

(산업부장관)

## 산업부, 전력설비 현장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9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일을 맞아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올 여름은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근의 이상기온,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예보 등에 따라 전력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 장관은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각 전력유관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9일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종시 세종발전본부를 방문,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전력거래소에는 하계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비상자원에 대한 불시

점검과 정전, 고장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을 7월 중 완료해 비상상황 발생시 철저히 대비토록 강조했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는 하계 피크전에

준비를 마쳐 발전설비를 적기 가동해 피크시 전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소는 여름철 고온에 따라 석탄 자연발화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화재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송전선 및 배전설비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 점검과 긴급 복구태세를 강조했다.

예비력인안정적이라든가 송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국지적인 정전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전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력그룹사 모두 하계 수급대책기간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수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 문체부 월미도 놀이기구 전수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월미도 유원시설 안전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월미도 유기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월미비치랜드’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썬드롭’의 추락사고 이후 문체부와 인천중구청이 지난 3일 실시한 현장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구 85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서울랜드, 아월드),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오진희 기자

## 전북일대 ‘제4호 말 산업특구’ 지정

농식품부, 승마 등 육성사업 추진

전라북도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 지역이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제4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전북은 2017년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km<sup>2</sup>)으로 구성돼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75개소에서 448두(지정기준의 3.2배)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통해 한해 3만2000여 명이 승마체험을 즐기고 있는 등 말산업 육성에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김동연, 러시아 기술박람회 ‘이노프롬’ 참가

95개국 기업인 5만여명 모여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최대의 국제산업 기술박람회 ‘2018 이노프롬’의 파트너국으로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노프롬은 총 95개국 기업인 5만 여명이 참가해 분야별 전시와 150여 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교류하는 글로벌 산업 혁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개막 축사에서 지난 6월 22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한국측의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문 대통령이 부총리 참석을 특별히 당부한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이노프롬에서 혁신의 의미를 세 가지 각도에서 제시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개막식 직후 예브게니 쿠이바체프 스베르드롭스크주 주지사 주재로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데니스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 등 러시아 인사들과 양국 혁신·산업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문체부 호텔 위생·종업원평가 강화

호텔등급평가 시 청결관리와 종업원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등급 유효기간 중에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평가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해 호텔등급평가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매뉴얼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객실·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180mm 기습폭우... 제방 무너지고 하천 범람

# 보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도로 파손 12곳·산사태 2곳 등  
피해액 50억 넘어 선포대상 해당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시간 동안 180mm의 기습 폭우가 내려 모원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미력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잠겼다.

9일 현재 접수된 피해는 도로 파손 17곳, 하천 범람 45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침수 5건, 산사태 2건 등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성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45억원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는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50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된 화천면 모원저수지에서 31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보성군 미력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피해조사를 거쳐 금액 기준이 되면 선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반은 10일부터 보성군에서 조사에 나선다. 보성군은 모원저수지 개량 복구에 30억원, 지방하천인 미력천 보수에 202억원 등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 1일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2500여명이 투입돼 응급복구에 나섰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신고가 늘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포 건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보성군에 긴급 응급 복구비 2억원을 지원했다.

이어군은 행정안전부에 응급복구용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하고,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원상 복구사업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metroseoul.co.kr

# '치사율 30%' 살인진드기 대처법은?

영광소방서 "물리지 않는게 최선"

것이 좋다.

영광소방서(서장 박준익)는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 살인 진드기감염병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는 영유아와 노인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에 물릴 경우 증상은 고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기침 등이다.

전문가들은 살인 진드기 없애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만약 산이나 풀밭을 다녀왔다면 온몸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드기에 물린 것을 발견한 직후 빠르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진드기를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핀셋이다. 핀셋을 사용해 진드기의 몸통이 아닌 피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진드기의 주둥이 부분을 핀셋으로 잡아 진드기를 비틀지 말고 수직 방향으로 진드기를 뽑아낸다.

진드기는 피를 흡혈할 때 사람의 피부를 아주 세게 물고 파고들기 때문에 진드기의 몸을 비틀면서 제거하면 피부에 큰 상처가 나서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진드기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등에 앉지 말아야 한다.

산이나 공원등을 다녀온 후에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면 반려견도 씻겨야 하겠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기념식수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이 9일 광주시청 기념식수 동산에서 열린 '제13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취임 기념식수'에 참석해 기념식수 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는 인문학 강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서 진행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로 마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양주승)이 여름방학을 맞아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체험형 '인문학 과정'을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씩 3차에 걸쳐 총 9일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길 위의 인문학', '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초·중·고 학생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각 차시별 교육에서 청년사관학교·대한드론협회 방문과 독서토론·영어애니메이션 교육방법 및 스마트 워크 실습·드론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1차 과정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의 조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호 교수가 담당하며 '미래인재의 조건', '독서 패러다임 전환' 등 강연 2번에 체험 과정으로 '중진공 탐방과 독서토론'이 진행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9일 시작하는 2차 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국고정문화원 나현진 수석코치가 진행한다. 미래인재 육성전략으로 '코칭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우게 되며 '영어애니메이션 교육 방법'과 '스마트 워크'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드론' 교육을 받고 드론체험관도 방문하는 3차시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대한드론협회 강사들과 함께 '드론 핵심기술'과 '드론이 디자인하는 미래'에

대해 배우며 드론 진로체험관을 방문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양주승 관장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를 바로 알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회관 문헌정보과로 문의할 수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 장성군립도서관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강좌 '평평'

전남 장성군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풍성한 문화 강좌를 연다.

장성군립도서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삼계도서관, 진원,삼서드림빌 작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초·중·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학 강좌는 독서캠프를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독서능력과 소통을 위한 공감대화 기법 등 다양한 테마로 강좌를 준비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에서 놀자(독서캠프) ▲책과 함께하는 공감대화(소통캠프) ▲애들아, 책 숲에서 놀자 ▲역사랑 놀이랑 ▲동화랑 푸드랑 ▲종이랑 클레이 ▲캐릭터 친구 그리기 ▲나도 연예인! 방송댄스 강좌를 운영한다. '나도 연예인 방송댄스'는 어린이에게 춤과 스트레칭을 통해 흥미를



삼계도서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법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신설했다.

삼계도서관에서는 ▲책 숲 꿈꾸는 공예 ▲책 읽는 꼬마 과학자 ▲로봇과학교실 ▲도형과 기질분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진원 작은도서관과 삼서드림빌 작은도서관에서도 ▲클레이 공예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은 평균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중이다. 문화교실 참여는 장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목포시 '2018 하계 대학생 알바' 본격 추진

전남 목포시가 '2018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6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교육을 갖고 근무준수 사항과 배치 부서 등을 안내했다.

인라 김중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4년 임기 동안 2만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어가겠다."며 "목포에 머무르면서 원하는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가꿔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생 65명은 9일부터 8월 3일까지 목포시청 각 부서,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36개 사업장에서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4주 만근시 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진로 선택을 위한 직장 경험을 쌓고, 알토란같은

용돈을 벌 수 있어 대학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단순한 사무보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목포시는 "사회 경험을 쌓으며 여름방학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다."며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년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5555knj@

# 전남 영암·해남 '솔라시도'

## 공유 수면 토지화 완료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삼호지구 공유 수면의 토지화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해남 구성지구가 완료된데 이어서 영암 삼호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해당되는 2431만 8000㎡가 등록됐다.

이에 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호지구의 경우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45홀 조성 공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향후 골프장과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승마장, 마리나리조트, 등대전망대, 허브테마단지 등이 조성되면 서남권 최고의 명품 관광레저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영암=김남중 기자

# 지금은 소형 오피스 · 오피스텔이 투자자대세!

**실투자금  
1억에 4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KTX(2021년)·송도 테마파크(2020년)  
교통프리미엄과 4만 임대수요 최대수혜지!**

청량산과 서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송도 옥련동 최고의 명품 조망권과 송도테마파크 미래비전을 담은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PARKVIEW**  
송도 파크뷰 오피스텔



**ChosunMedia 조선일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노려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통상 전용면적 60㎡ 이하를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60㎡ 이상 중형 오피스텔은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내부 설계나 입주 편의시설이 크게 떨어져 수요자 확보가 쉽지 않다. 월세 수익률도 소형보다 낮다. 예를 들어 전용 23㎡와 27㎡가 있다면 23㎡를 택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격은 27㎡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준공 후 임대료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용 60㎡ 이하의 세제 혜택도 있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넘으면 85% 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05월 15일

- 옥련동 최고 조망권 확보 분리형 1.5룸/2룸
- KTX·수인선 더블역세권 인천의 교통중심
- 놀이시설 워터파크, 호텔 등 송도테마파크 계획
- 희소성 높은 소형평면 공실률 걱정 ZERO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2021년)  
**KTX**  
부산까지 2시간!

- 오피스 96실
- 오피스텔 112실
- 상가 16실

**송도의 교통특권과 미래비전을 먼저 누린다!**

<b>7200억원 투입, 송도 테마파크 2020년 개장 예정!</b> 놀이거주, 워터파크, 리조트 등 멀티 콘텐츠 테마파크 49만㎡ 규모, 2020년 예정, 업계종사자 4만여 임대수요 확보	<b>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b> 하루이용객 2-3만 예상되며 인천 상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인 2021년 예정
<b>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단지, 송도 골든하버</b> 쇼핑,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레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로 복합화 된 럭셔리 관광휴양단지	<b>문화관광시설 중심지</b> 인천상록자전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송도 국제신도시 등 연간 30만명 관광객 유입
<b>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2019년 예정)</b> 2016년 착공 2019년 준공예정, 총 40만평 규모(항만시설 22만, 지원시설 18만)	<b>가깝게 누리는 생활 인프라</b> 송도 꽃게거리 바로 앞, 반경 2km 이내에 CGV, 롯데마트, 도서관, 해양공원, 은행 등이 위치



**문의 전화 1899-6333**

**합리적인 분양가에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까지!**



웅진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 용인술

# 첫째 아들은 '영업·마케팅'



웅진에버스카이  
윤형덕 대표

웅진그룹 창업주인 윤석금 회장이 큰 아들은 '영업·마케팅'으로, 둘째 아들은 '기획'으로 차별화하며 2세 경영 승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윤 회장이 1980년 당시 7명의 직원과 함께 세운 웅진씽크빅을 모태로 한 웅진 그룹은 서른살이 갓 넘은 2010년대 초반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큰 성장통을 겪었다. 그 후 윤 회장은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고, 울어들 정수기 등 생활가전 방문판매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갈 두 아들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펴낸 자신의 두 번째 자서전 '사람의 힘'에서 "나만큼 사람의 힘을 절실히 체감해온 사람도 없을 것이다. 웅진의 근간이 되어온 세일즈도, 슬한 위기에서 웅진을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사람의 힘이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에게 받았던 긍정과 희망을 이젠 두 자식에게서도 찾고 있는 것이다.

9일 웅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업운영총괄 담당으로 윤새봄 전무를 선임했다. 윤 전무는 직전까지 웅진씽크빅 대표를 역임했다. 윤 전무는 윤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윤 회장이 지주사인 웅진에서 교육·출판, 생활가전, 레저 등 계열사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둘째에게 맡긴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전무는 웅진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웅진 기획조정실장 등 아버지 회사에서 주로 전략·기획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윤 전무가 웅진씽크빅에서 지주사로 넘어오면서 법무, 세무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총괄을 하게되면서 그룹의 큰 그림을 그리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동생인 윤 전무가 형인 윤형덕 웅진에버스카이 대표보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윤형덕 대표, 해외시장사 사업 이끌어  
윤새봄 전무, 계열사 사업총괄 담당

후계구도에서 앞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이는 77년생인 윤 대표가 동생인 윤 전무보다 두 살 많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식들에 대한 윤 회장의 용병술이 돋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첫째 아들인 윤 대표가 맡고 있는 웅진에버스카이는 터키에 진출해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무역회사다. 윤 회장은 그룹이 위기를 맞으면서 품에 있던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뒤 국내에서 정수기 사업이 여의치 않자 큰 아들을 통해 터키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코웨이 매각 후 약속했던 겸임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올해 바로 정수기 등 방문판매사업에 뛰어

# 둘째 아들은 '전략·기획'



웅진 사업운영총괄  
윤새봄 전무

든 것도 그동안 터키에서의 성과 등을 녹인 결과다.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윤 대표는 웅진코웨이 시절 경영기획실장을 맡으면서 국내 1위의 방문판매기업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또 웅진 계열사인 웅진투투럽도 총괄하고 있다. 투투럽은 '더말로지카' 등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한편에서 보면 윤 회장이 첫째 아들에게는 변방의 사업을, 둘째 아들에게는 그룹의 핵심 사업을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윤 대표에게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무역 노하우, 영업감각을, 그리고 윤 전무에게는 기획·재무·전략 관련 업무를 두루 쌓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형인 윤 대표가 바깥살림을, 동생인 윤 전무는 안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윤 회장의 절묘한 경영 수업 전략이 녹아 있는 셈이다.

지주사 지분은 형이 12.51%로 동생(12.48%)보다 다소 많다. 다만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지분은 형과 동생이 각각 2.84%, 0.23%로 같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사업 총괄은 당장

동생이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룹내 지분은 형이 많은 시점에서 승계 구도상 누가 우위를 점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윤 회장의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두 아들도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 웅진이 도약하는 과정에서 아들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은 서울 종로에 있는 그룹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 웅진씽크빅, 웅진렌탈 등 핵심 계열사 업무를 챙기면서 두 아들의 '경영 멘토'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교원그룹 '엄마·아빠 회사 체험캠프'**  
교원그룹은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엄마·아빠 회사 체험캠프'를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도고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선 부모의 역할 이해, 아이와 마음 나누는 방법, 감정 코칭 등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부모가 강의를 듣는동안 부모님을 생각하며 편지를 준비했다. 저녁시간에는 부모들이 미리 준비한 영상편지와 아이들의 편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

## 네이버랩스유럽, 성공적 인공지능 학술대회

프랑스서 열린 'PAISS 2018' 개최

네이버가 지난해 6월 인수한 프랑스 소재 기술개발연구소 네이버랩스유럽이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린 인공지능 학술대회 'PAISS 2018(패스 2018)'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는 지난 2010년 컴퓨터 비전(시각) 연구 분야의 기술 공유로 시작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 학술대회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을 이번에 프랑스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부설 그르노블 알프스연구소와 네이버랩스유럽이 공동 주관해 부활시켰다.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44개국에서 200명의 청중이 참여했으며 총 15개의 강연과 3개

의 실습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최고의 AI 석학 중 하나인 안 르륀 뉴욕대 교수 겸 페이스북 AI 연구소장을 비롯해 기계번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 구글 답마인드 연구센터장 레미 무노 선임연구원, 3D 비전 분야의 석학인 런던대학교 루드트 아가피토 교수, 카네기멜론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소장 마셜 허버트 교수 등 학계와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AI 연구자들이 참여해 자신의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네이버랩스유럽에서도 즐리앙 페레즈와 디앙 라르루스 연구원이 참여해 머신러닝(문자기반의 답러닝 학습 기술) 분야와 컴퓨터 비전(이미지 인식 및 검색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구서윤 기자

## 인간 수준 AI... 충전없는 드론...

# 과기정통부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수립

나노기술 6대 분야 성장 반영  
'미래기술 30' 실현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나노기술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10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18~2027)'를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경쟁력은 2001년 선진국의 25% 수준에서 4위권으로 성장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노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나노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는 그동안 나노분야 연구방향 설정의 지표가 된 기존 나노기술 6대 분야 사전적 기술지도를 최근 기술 성장을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우선적으로 확보할 전략적 기술지도와 이를 실현할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전략적 기술지도는 미래사회 3대 목표인 편리하고 즐거운 삶,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으로 정했다. 또 이들 목표에 대해 '나노기술로 구현하는 미래기술 30'을 선정하고 '미래기술 30' 실현에 필요한 상세 나노기

술 로드맵을 마련했다.

미래기술 30에는 '개인휴대용 인간 두뇌 수준 인공지능', '속도 무제한 통신 환경', '충전 없이 날 수 있는 드론', '인공나뭇잎 광합성',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자동차', '거부반응 없는 인공장기'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10년의 나노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1기(2008~2017), 제2기(2014~2025)에 이어 세번째로 수립됐으며 지난달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구서윤 기자 yun2514@

## 중견기업 절반 "높은 상속세"가 승계 막아"

중견기업의 절반이 승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9일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47.2%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지목했다. 이외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 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지적됐다.

중견기업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라며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동력이 아닌 기업 포기 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승계 이후 10년간 해당 업종을 유지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할 때 우 까다롭다는 게 중견기업의 주장이다.

중견기업은 또 중견기업의 37.6%에서 고령의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이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 휴온스

### 러 146억 규모 공급 계약

휴온스는 러시아 현지 에스테틱 전문기업인 '인스티튜트 오브 뷰티 피지'(Institute of Beauty FIJIE)와 6년간 약 146억 원 규모의 휴톡스주(HU-014)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휴톡스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얼굴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2016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받아 해외 일부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품목허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휴온스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건면 스파게티가 컵 속에... 농심 '면 간편식' 시장 도전장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 첫 선

기존 제품대비 보관·조리 간편 극대화  
중공면 제조·네스팅 공법 등 기술 집약

농심이 '면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라면처럼 간편하면서도 면 요리 수준의 맛을 내는 '면 간편식'으로 국내 건면시장을 또 한번 뒤흔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심은 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의 맛을 고스란히 담아낸 컵 스파게티 스파게티 토마토를 선보였다.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 건면 간편식 제품이다. 농심은 독자적인 제면 기술을 집약해 라면업계 최초로 실제 스파게티의 주 재료인 듀럼 밀로 면을 만들어 고유의 식감을 살림은 물론, 여기에 대중적인 토마토 소스를 더해 정통 스파게티의 맛을 완성시켰다.

최근 혼밥족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각종 간편식품이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간편식 시장은 일반 요리를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과 별도 조리과정이 없이 식사시간까지 줄인 '간편대용식'이 대표적이다.

김중준 농심 마케팅실장 상무는 "제품을 구매하고 보관, 사용 후 폐기까지 고객의 구매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간편성과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

편리성이 확보되는지에 주목했다"며 "그리고 지난 50년간 라면시장을 이끌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면류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는 기존 면 간편식 제품들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고 용기면 형태로 보관과 조리 간편성을 극대화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주요 4개사 기준), 국내 건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25.2% 성장한 1166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일반만 하더라도 전체 면시장의 18%가 건면이 차

지할 정도. 국내 건면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되는 바다.

이는 칼로리가 낮고 담백한 건면 특유의 매력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냉면, 쌀국수, 육개장 등 실제 요리에 가까운 고품질의 건면제품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합격점을 받은 것도 이유다. 그 가운데 농심은 지난해 55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건면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상무는 "저렴한 가격과 조리 편의성은 타 간편식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요소"라며 "기존 간편식은 1인 가구나 주부들이 주 타깃이지만, 농심

스파게티 토미토는 1020세대 소비자까지 품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농심이 새롭게 내놓은 스파게티 토마토의 핵심은 면이다. 일반 라면과 달리 실제 스파게티 면을 그대로 담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농심은 라면업계 최초로 정통 스파게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듀럼 밀을 재료로 선택했다. 듀럼 밀은 밀가루 중 가장 단단하면서 입자가 굵은 종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간 라면업계가 듀럼 밀로 스파게티를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농심은 면 가운데 얇은 구멍을 뚫는 '중공면' 제조 기술로 스파게티 면을 만들어 냈다. 면 중앙에 난 구멍은 면의 표면적은 1.5배 이상 넓히고 구멍 사이로 뜨거운 물이 스며들어 면이 빨리 익을 수 있는 것. 또한 국물이나 소스도 스며들게 돼 맛 또한 업그레이드 된다. 해당 제조기술은 지난 2010년 농심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다.

길쭉한 스파게티 면을 용기에 담은 기술은 2008년 동지냉면을 출시하며 개발한 '네스팅' 공법이 적용됐다. 네스팅 공법이란 뽑아져 나온 면을 뜨거운 바람이 새 동지 모양으로 돌려

서 말리는 기술이다.

소스는 가장 대중적인 토마토 소스를 선택했다. 원재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스프 제조기술을 활용해 토마토 분말 스프를 만들고 올리브 풍미유를 넣어 프라이팬에서 갖 조리한 스파게티의 맛과 향까지 살렸다.

농심은 스파게티 토마토와 같이 차별화된 건면제품이 건면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체 라면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무는 "히트제품을 만드는 게 식품회사로서의 꿈이다. 다른 형태의 제품들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도 열심히 개발 중이다. 면 간편식 영역을 가열차게 개척해나가기로 하겠다"며 "맛과 간편성을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며 2020년까지 건면매출을 지금의 2배 수준인 1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심은 2007년 건면 전용 생산공장인 녹산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동지냉면, 후루룩국수, 건면새우탕, 스파게티 토마토 등 다양한 건면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건면시장을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흑맥주계의 걸작 '레페 브라운' 출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해아 서울에서 모델들이 정통 로얄 프리미엄 맥주 레페(Leffe)의 '레페 브라운'과 '레페 블론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리워드 페스티벌' 개최... 최대 17% 혜택

CJ ENM 오쇼핑 개국일 기념 행사

CJ ENM 오쇼핑 부문이 채널 개국일을 기념해 오는 8월 1일까지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채널 개국 23번째 해를 맞아 9일부터 8월 1일까지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리빙, 패션, 뷰티, 유아동, 식품, 생활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들을 최대 17%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리워드 페스티벌'과 CJ몰에 접속만 해도 다양한 적립금과 쿠폰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혜택과 이벤트가 준비됐다. 먼저 CJ몰에서는 일자별 적립 대상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17%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드 페스티벌' 기획전이 22일까지 진행된다.

약 2주에 걸쳐 리빙(9~10, 20~22), 백화점상품(11~12), 유아동·식품·생활 용품(13~15), 패션(16~17), 뷰티(17/18~19) 등 카테고리 상품을 일자별로 선보이고 누적 구



매 금액대별 최대 10% 적립금 및 일자별 최대 7% 카드사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구를 장만할 고객이라면 최근 '배송일 지정 서비스'를 오픈한 CJ몰 한샘 브랜드관을 주목하자. 매트리스, 책상, 책장, 아동 수납장 등 일부 설치 상품에 한해 고객이 원하는 배송일을 결제 단계에서 지정할 수 있다.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CJ몰 앱에서 CJ오쇼핑 및 CJ오쇼핑플러스 방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사은품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셰프·장소 달라도 맛은 한결같이...

## 롯데호텔, 국내외 조리·식음서비스 표준화

'글로벌 컬리너리 R&D센터' 출범  
해외 음식 문화·신메뉴 개발 박차

롯데호텔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국내외 30여개 지점의 조리과 F&B(식음)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롯데호텔은 지난달 김정환 대표이사 주도로 잠실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컬리너리 R&D센터'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센터에서는 메뉴개발, 체인 호텔 간 표준화, 식자재 발굴, 최신 조리 트렌드 분석과 체인 호텔 교육 및 적용 등에 힘을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먼저 셰프들의 국내외 체인 호텔 레스토랑 교차 근무를 지원

해 셰프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집약해 다양한 글로벌 음식 문화를 개발, 국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최근 인기인 애플수박을 무스, 파이, 타르트, 젤리, 케이크 등 디저트류에 접목해 여름 시즌에 맞춰 선보인 '이상한 월드의 애플수박' 프로모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수 조리 인력 양성도 센터의 주요 미션 중 하나로, 현재 국내 조리 기능장 670명 중 38명, 조리 명장 11명 중 1명이 롯데호텔에 근무하고 있다.

디저트는 프랑스 셰프, 디저트는 중국인 셰프, 케리와 난은 인도인 셰프가 만드는 등 외국인 셰프들의 활약으로 로컬푸드 현지의 맛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메뉴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빙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애플수박 빙수, 코코넛 망고빙수 등 1인용 빙수를 선보였다. 또 한국적인 풍미를 살린 콩나물 조개수프, 칼칼한 게살 수프와 프랑스 등 각국의 대표 디저트를 재해석 후 우리만의 색을 입힌 애프터는 티 세트 출시하는 등 이색적인 신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롯데호텔은 미셸린 스타 셰프들과의 협업을 통한 메뉴 업그레이드 및 조리 노하우 공유도 꾸준히 하고 있다. 올해는 도쿄 미셸린 1스타 오카모토 마코토 셰프와 라뎬스 미식회를 진행했고, 전 세계에서 최연소로 중식 미셸린 3스타를 획득한 아우 앨버트 셰프와 여경옥 셰프의 한중 스타 셰프 미식회도 개최했다. /신원선 기자

## GS25 원두커피 카페25, 점포 1만점 돌파

내일부터 G마켓·옥션서 핫딜 이벤트

GS25의 원두커피 브랜드 카페25가 1만점을 돌파했다.

9일 GS25에 따르면 카페25의 최근 한 달 판매량은 700만 잔을 넘어섰다. 지난 2015년 론칭 초기, 월 평균 100만 잔 수준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카페25의 판매량은 30개월 만에 7배를 넘어섰다.

GS25는 1년에 1억잔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7개월 만에 누적 1억잔 판매를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00만 잔을 판매했다. 론칭 후 17개월이 걸렸던 4000만 잔 판매를

6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꾸준한 판매율 상승에 힘입어 GS25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카페25 점포 확대에 힘을 쏟았다. 실제, GS25는 한 대에 1300만 원에 달하는 유라(JURA)사의 최고급 원두커피 머신을 구매해 점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카페25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전국 대부분의 점포에서 카페25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GS25는 카페25 1만점 돌파를 기념해 이달 11일부터 G마켓과 옥션을 통해 핫딜 베스트 메뉴인 아이스아메리카노와 아이스캐라떼를 반값으로 구매할 수



GS25 원두커피 카페25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 /GS리테일

있는 50% 할인 쿠폰 5만개 핫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반도체 의인화' SK하이닉스 광고 SNS서 인기

두번째 광고 '수출편' 유튜브 2280만 뷰

SK하이닉스의 후속편 광고 영상 '수출편'이 SNS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말 방영된 이 광고는 공개 열흘 만인 9일 오전 유튜브 조회수 2280만회를 넘어섰다. 전편인 '졸업식편'에 이어 연달아 대박을 향해 달리는 상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후속편 초반 흥행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회사, 일해보고 싶은 회사'로 다가서고자 한 취지에 맞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편과 달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에도 광고를 공개해 더욱 빠르게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도 더욱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기준 전체 조회수 2280만 뷰 중 국내 960만,



SK하이닉스가 새롭게 방영을 시작한 광고 영상 화면. /SK하이닉스

해외 1320만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전편이 기록한 유튜브 3000만 뷰는 국내 상영 목적으로 제작된 기업 광고로는 사상 최고라는 평가다. B2B 기업의 광고가 이렇게 잇달아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졸업식편과 수출편 모두 유튜브를 즐기는 영유자들이 열광하는 맥을 정확하게 짚은 광고"라고 평가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S-OIL 청년 푸드트럭에 1억원 유류비 지원

S-OIL은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S-OIL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업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마련했다.

함께 일하는 재단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

그램을 공고하고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도권 25개 팀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15개 팀 등 총 40개 팀을 선발했다. 각 팀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지급된다.

오스만 알 감디 S-OIL CEO는 "작은 자본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존경을 표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라며 S-OIL도 지금 여러분들이 즐



9일 S-OIL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S-OIL

는 탐과 눈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아모레퍼시픽

## '핑크리본 힐링캠프' 3년 연속 후원

아모레퍼시픽은 유방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2018 핑크리본 힐링캠프'를 3년 연속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유방암과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 참가자 전원은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소통 전문가와 유방암 전문의 특별 강연, 쿠킹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2018 핑크리본 힐링캠프' 포스터. /아모레퍼시픽

/김민서 기자 min0812@

## 필라코리아 잠실야구장서 '힐라 데이' 개최

필라코리아(이하)는 회사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라 데이(FILA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프로스포츠계 역사상 최장기간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장을 전 임직원

이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는 '힐라 데이' 행사로 마련한 것이다. 힐라코리아는 6일 오전 서초동 힐라코리아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진행한 뒤 오찬을 가졌다. 업무가 종료된 뒤 저녁에는 잠실 야구장에 모여 단체 응원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단위 레저 활동을 독려했으며, 임직원 및 참석 가족 전원에게 힐라, 두산 심볼이 새겨진 응원용 기념 티셔츠와 애코백 등을 증정했다.



잠실야구장을 찾은 힐라코리아 임직원 모습. /필라코리아

/김민서 기자

###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60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는 법. 72년생 성공이 코앞이니 조금 더 노력. 84년생 힘들어도 하던 일을 계속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 소** 49년생 신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6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의외의 복병이 있으니 주의. 73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8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 호랑이** 5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62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74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86년생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 토끼** 51년생 병도 약도 다 내뺐다. 63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도 일은 오늘 마무리하자. 75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쁨. 87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말** 52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64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에 최선이다. 76년생 금전운이 따르는 하루. 8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 뱀** 53년생 먹을 복이 있는 날. 65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별로 없다. 77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행동하면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8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 말** 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 66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78년생 결과가 좋아서 과정보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다. 90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꿈을 얻지 못한다.
- 양** 55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행복. 67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79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9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크게 보고 행동.
- 원숭이** 5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68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8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9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이다.
- 닭** 57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배우자를 배려하자. 69년생 조급한 행동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명심. 81년생 구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하라. 93년생 남을 배려하면 그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
- 개** 58년생 물가로 피서를 떠나보자. 7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임을 잊지 마라. 82년생 인맥을 이용해서 유리한 정보를 얻어라. 9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 돼지**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8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95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8	4			7	9	
	5	1		7		8	6	
9		7				1		3
6								9
			5		2			
1	4					5		6
	9	5	8		1	3	4	

					2			
	2				1		4	5
			7				9	
		6						4
	8				4	5		7
3				7		1		2
	5	4		2	8		7	1
	3							
			6	4	9	3		

스도쿠 정답								
2	7	8	1	9	8	5	6	4
9	8	5	6	4	7	3	1	2
1	6	4	2	7	5	9	8	3
6	4	2	7	5	1	8	9	3
8	5	1	9	8	2	7	4	6
7	9	8	6	4	1	5	2	3
8	9	5	1	6	2	7	4	3
5	1	6	4	2	7	8	9	3
4	2	7	8	9	6	1	5	3
5	8	9	6	7	9	2	1	4
6	7	2	4	5	1	8	9	3
1	4	9	8	2	7	5	6	3
2	6	1	9	4	8	5	7	3
4	9	5	7	8	2	6	8	1
7	8	1	6	5	9	4	2	3
9	5	7	8	1	6	4	2	3
8	1	4	2	9	7	6	5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하라



**이상연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지난 달 발표된 소상공인 경기동향 지수가 올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했지만, 호전될 것을 예상하는 지수 100을 초과하지 못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활성화의 장기적 지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각종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문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포 매물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리가 없는 점포들도 많아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는 듯하다.

어떠한 환경이든 창업에는 타이밍이 있다. 창업의 3요소인 '사람, 아이템,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경기호황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잘되는 시기가 최상의 창업 타이밍임은 물론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고용,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풍족한 사업 자금이 경기 흐름까지 좋을 때 창업하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사업 초기의 성공은 그야말로 '따 놓은 당'

상'일 것이다. 하지만 환상적인 창업 타이밍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본이 없거나 부족하고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도 '맨파워'(man power)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창업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나서 창업하겠다는 것은 창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창업환경은 트렌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창업해야 할까? 창업을 고려 중인 사업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있다고 판단되고, 창업의 3요소를 갖추는데 한 가지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창업 타이밍이다. 특히 초기 권리가 같은 자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창업자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 두려움을 없애라. 경기 활성화의 지체와 소득정체,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매출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업환경은 어느 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웠던 점포 매

물이 증가하고 권리가 아예 없거나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하락했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권리의 하락은 투자 대비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포 매물은 줄어들고 권리는 치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기타제반 시설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환경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라 닥으며 경제 침체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사람들은 권리가 적고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성공 사업을 일궈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창업자들에게 더없이 유리한 창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조금의 마음으로 선불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눈감고 좋은 세월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망설이고 있는 시간만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한화건설, 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한화건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7일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화건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직원들을 비롯해 지난 5~6월말까지 2개월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대학생 봉사단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건설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5기 발대**  
대우건설의 대학생 홍보대사 15기(이하 대대홍)가 활동에 나선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대홍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사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1월 9일까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총 36명의 대대홍은 개인 SNS 활동과 다양한 주제의 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우건설

# 혼자 볼게요



**기저 수집**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화장품, 의류 매장을 들어설 때면 고민에 빠진다. 점원의 친절함 응대할 때때로 매장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SNS에서는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점원들을 향한 성도가 끊이지 않는다. 한 누리꾼은 '필요한 제품만을 사고자 했으나, 점원의 적극적인 공세에 필요치 않은 제품까지 반강제로 구입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다. 해당 매장은 명동이라는 위치적 이점을 악용,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도 넘은 '강매'를 하는 것으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추천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점원의 태도나, '혼자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과도한 영업이 지속될 경우의 문제는 다르다. 개개인의 이용 후기가 쌓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설 들 없이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점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브랜드별 서비스 지침도 제각기 다르다. 결국 고객과 점원간 '적절한' 서비스가 오고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답일 테다.

이 같은 '불편한 쇼핑'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언택트(un+contact) 마

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의 경우, 아주 간단한 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 '혼자 볼게요',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도입해 불필요한 서비스가 오고 가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이 밖에 신세계 편집숍 시코르는 직원 응대 없는 '뷰티 놀이터'를 콘셉트로 하고, 올리브영 강남 본점은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 고객이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서 언택트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과 점원이 발 붙이고 있는 매장의 현실은 눈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원은 불필요한 미소를 보이지 않고, 고객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쇼핑' 문화,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까. /min0812@metroseoul.co.kr



**롯데자산개발 "정시퇴근 하세요"**  
롯데자산개발이 임직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임원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워라벨을 임원이 직접 챙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롯데자산개발 이광영 대표이사(왼쪽에서 3번째)가 사무실을 다니며 직원들에게 정시퇴근을 권유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 중진공,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태백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3기를 맞는 '2세 경영인 단기학교'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박5일간의 일정에는 경영역량 강화, 개인 리더십 스타일링, 성공사례 탐구,

연수생간 네트워킹, 기업 경영 관련 세계 이해 등 2세 경영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연수 참가비는 52만8000원이지만 지방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연수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 ◆KB증권 ◇ 신규 (임원) △ 부동산투자본부장 (상무) 김덕규 (부사장) △ 부동산투자1부장 정찬수 △ 부동산투자2부장 신영삼 △ 부동산투자3부장 김상혁
- ◆통계청 △ 기획재정담당관 이호석 △ 혁신행정담당관 유영호 △ 전략성과팀장 원정연 △ 통계조정과장 이지연 △ 품질관리과장 김정란 △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용 △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 조사시스템관리과장 노준호 △

- 경제통계기획과장 김보경 △ 경제조사과장 문정철 △ 소득통계과장 심상욱 △ 인구동향과장 김진 △ 복지통계과장 박상영 △ 농어업동향과장 임철규 △ 통계분석실장 황현식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윤미선 △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안재학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최인범 △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준 △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우열 △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유상길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등 △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정희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세욱 △ 부동산산업과장 하창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원장 이정현 △ 해양정책연구소장 양희철 △ KIOST스쿨장 김봉채 △ 남해연구소장 심원준 △ 동해연구소장 박찬홍 △ 제주연구소장(직무대행) 강도형 △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장 김영옥 △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지상범 △ 해양공학연구본부장 권오순 △ 해양영토연구본부장 최복경 △ 국제협력부장 강현주 △ 연구개발부장 강길모 △ 해양연구기반부장 유주형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

- 지대장 임장근 △ 기획부장 김세용 △ 행정부장 김석기

## 부음

- ▲ 김석규씨 별세, 김경환·경철·경호(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기획팀장)씨 부친상, 이인내·구진희씨 시부모 = 9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2290-9442
- ▲ 박창임 씨 별세, 김명수(에쓰오일 상무)·정수·정숙·정화·정란·정미·정애 씨 모친상, 김행자·김영남 씨 시모상, 박석조·유한주·김용길·배은수 빙모상 =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새로나추모관, 062-611-0000
- ▲ 강수봉(제주도 호남향우회회장)씨 별세, 강성민(제주지방경찰청 123의경대장)·혜진(제로핏 스튜디오 대표)씨 부친상, 이계상(광주MBC 기자)씨 장인상 = 9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부민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064-742-5000

<b>metro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88호



**BGF리테일, 신입사원 나눔으로 사회 첫 발**  
최근 워라벨 등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이 같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DIY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BGF리테일

# 기업, 블라인드채용 취지 ‘공감’ 채용 결과·직무적합성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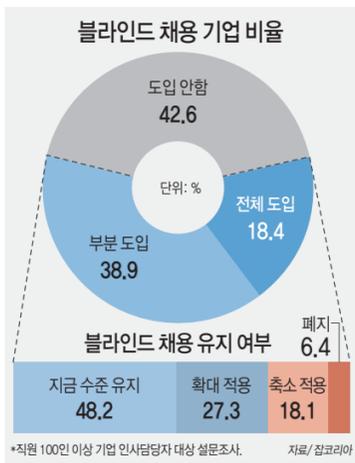
100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단 25%만 “도입 축소·폐지 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잡코리아가 직원수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한 기업 2곳 중 1곳에 해당하는 48.2%가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확대 적용할 것’이란 기업도 27.3%로 75.5%의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1%는 ‘지금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했고, ‘도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란 응답은 6.4%였다.

블라인드채용은 문제인 정부가 탈스



펙,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삼아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지금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1%가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고, 20.0%는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등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블라인드채용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것

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9.9%의 응답을 보였다.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공감하는 비율 만큼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기업 중 약 13%가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블라인드채용을 일부 또는 전체 도입한 기업 중 18%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실제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채용과정·절차’, ‘채용 결과’, ‘채용직원의 조기 퇴사율’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물은 결과,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만족을 보이는 항목은 ‘채용결과’로 기업 48.6%가 ‘도입 후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등 채용결과가 이전보다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전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26.9%, ‘학벌이나 스펙 등 이전에 비해 채용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24.5%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상당수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2.20%’ 동결

군산 등 9개 위기지역 3년 유예도 가능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대출 접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0%로 동결된다. 군산 등 9개 위기 지역에 속한 대출자들은 최대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학과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1.50~1.75% → 1.75~2.00%)했다. 올해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3.43%→3.68%)도 전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됐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의 경우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목포 등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의 일반상환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3년간 특별상환유예키로 했다. 이들 위기지역 대출신청자의 경우 오는 9월 1일~12월 31일까지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학점 취득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었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어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약 6주가 소요되는 소득구간 산정 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광운대 총장, 中 대학과 교류 협력 발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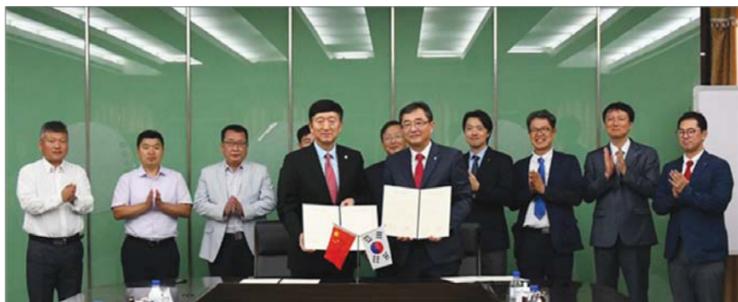
청도이공대·연변대 잇따라 방문  
양교간 협력·교류 등 MOU 체결

광운대 유지상 총장이 중국 대학들을 잇따라 방문해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9일 광운대에 따르면, 유 총장은 지난 6월 19일부터 4박 5일 간 광운대 국제교류협력과 현지 대학과의 교류협력 체결을 위해 중국 청도이공대와 연변대를 방문했다.

중국 청도이공대는 지난 2006년부터 광운대와 건축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유 총장은 지난달 19일 청도이공대 담수담 총장과 우덕호 부총장, 유춘당 국제교류처장 등을 만나 ICT 관련 학과 협력 확대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학과 공동 대학원생 교육 등에 관해 협의했다. 또 이와 관련된 양교 간 ICT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유 총장은 이 대학 졸업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해 우수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황도캠퍼스도 방문했다.

청도이공대 담수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약 80년 역사를 가진 광운대는 ICT 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



광운대 유지상 총장(앞줄 오른쪽)이 중국 연변대 김웅 총장(앞줄 왼쪽)과 교환 학생 및 국제 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를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유지상 총장의 방문을 통해 양교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지난 13년간의 양교 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협력 역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총장 일행은 이어 21일과 22일 연변대를 방문했다. 유 총장은 연변대 김웅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교환 학생 및 교류협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3+2 학부 편입학 과정, 3+1+1 학사사 연계과정, ICT관련 학과 학부 졸업생 대상 광운대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연변

대 훈춘캠퍼스를 방문해 100만㎡의 부지에 조성된 강의동과 도서관, 실습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연변대 김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광운대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교가 미래에 더 많은 협력을 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발전을 도모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교육개혁 강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운대는 해외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기업 10곳 중 2곳만 ‘여름휴가비’ 지급

평균 휴가비 49만5000원 집계

올해 여름휴가 때 기업 10곳 중 2곳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가비는 4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9일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49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6일까지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26.2%만 ‘휴가비를 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휴가비 지급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36.6%), 벤처·스타트업(27.6%), 중소기업(24.3%) 순이었다.

기업들이 지급하려는 휴가비 평균은 약 49만5000원이었다. 휴가비 지급구간

별로 지급액이 50만 원대(25%)와 30만 원대(24%)가 가장 많아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 원대(11%), 10만 원대(10%) 등의 순이었다.

인크루트가 지난 2005년 대기업 12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2%가 휴가비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고, 휴가비는 평균 33만3000원이었다.

한편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4%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입학금 지원 ‘2차’ 추가 접수

내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입학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신청기간’을 오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입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은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에 입학금을 이미 납부한 모든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월12일~3월15일과 1차 추가 신청기간(6월14일~19일)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 韓·美 대학생 연수 참가자 125명 선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125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6개월의 단기 연수생 65명, 12개월의 중기 연수생 60명이다. 지원 자격은 단기의 경우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다. 중기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졸업생(2018년 2월 또는 8월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 합격자들은 오는 12월 중 미국으로 개별 출국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월드잡 플러스나 국립국제교육원, 웨스트 페이스북을 참고해, 각 일정별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웨스트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최장 18개월간 미국에서 어학연수나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3225명이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 선발된 195명은 7월 중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미국 내 인턴 기업에서 성실성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웨스트 참가자들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ITALIAN DESIGN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A RECORD OF  
 36 days,  
 2 hours and  
 37 minutes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LIMITED EDITION 0301/2000



**MASERATI**  
 COLLECTIO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 의료사각 찾는 농진청의 '이동 농업종합병원' 큰 호응

한림대 의료원·LG전자와 함께  
지난달 충남 논산 금성마을 찾아  
일손돕기·생활시설 보수 등 진행

농진청이 1년에 4번 농촌 의료사각지대를 직접 찾아 의료봉사 및 이·미용봉사, 일손돕기 등을 펼치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의료복지나 행정 서비스가 열악한 충남 논산시 금성마을을 찾아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고 의료봉사와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금성마을에는 현재 97가구, 219명이 거주 중이며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83명(고령화율 37.9%)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촌 고령화 마을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 LG전자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라승용 청장과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 원장,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농진청 직원과 가족, 한림대학교 의료원 의료진, 마을 주민, LG전자 서비스팀 등 250명이 참여했다.



농진청이 지난 달 30일 충남 논산의 금성마을을 찾아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농진청을 비롯해 한림대학교 의료원, LG전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 이·미용 봉사, 일손돕기 등을 진행했다.



농진청

이날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에서는 이 지역의 주요 재배 작목인 딸기와 버섯을 재배하며 겪은 어려움을 농업 기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현장에서 경운기나 관리기 등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점검과 수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영농 현장에서 일손 돕기와 장수 사진 촬영, 농촌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이발과 염색 등 재능기부를 비롯해 낡은 전기 설비 등 생활 시설 보수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림대학교 의료진은 농촌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전문의들의 진료,

물리치료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도 진행했고, LG전자 서비스팀은 밥솥과 냉장고, 선풍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농진청의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전국의 농촌마을을 다니며 농업 기술 상담이나 일손 돕기, 농기계·생활 시설 수리, 의료봉사를 하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농촌 봉사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1회를 진행하며 약 58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달 30일 충남 논산의 금성마을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경북 영주의

평은마을, 9월 15일 전북 김제의 죽산마을, 전남 장성의 생촌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2010년부터 전국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나눔과 소통으로 풀어왔다"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촌 현장의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 예방을 위해 최근 10년간 농

작업 편이장비 12만여 점을 보급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484개소의 농촌 마을과 단체에 전동운반차, 동력방제기 등 총 11만 8420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했다.

편이장비 도입성가를 분석한 결과, 편이장비 사용 후 작업부하량과 연간 작업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고, 농업인의 근골격계 부담과 농작업 시간이 줄어 총소득의 증가와 고령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aT, 이달의 제철농산물로 '수박' 선정

피로회복·이노작용에 효과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의 제철농산물로 피로회복과 이노작용에 효과적인 수박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수박을 가리켜서 "이 세상 사치품 중에 제일로, 한 번 맛을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다"고 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수박이 황금·흑·미니·에플수박 등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져 눈과 입이 더욱 즐거워졌다.

수박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이노작용에 도움을 주어 각종 부종을 가라앉혀준다. 붉은 색소성분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작용·혈당저하에 효능이 있다. 몸의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 몸이 차거나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줄무늬 수박을 고를 때는 무늬가 선명하고 꼭지가 살짝 들어가 있으며, 배꼽이 작은 것을 위주로 고르면 된다. 또한 수박은 두드렸을 때 울림이 있는 묵직한 소리가 나와 잘 익은 수박이다.

수박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냉장



충남 부여에 위치한 규암농협 APC 유통센터에서 선별·분리 작업이 완료돼 출하준비가 된 수박. /aT

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저온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랩으로 싸면 세균 번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일주일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박연호 aT 유통정보부장은 "근래 들어 전국 수박 최대 생산지역인 충북 음성군의 물량이 출하하면서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거봉·복숭아 등 다양한 제철과일로 소비가 분산돼 이번 달 수박 가격은 6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다양한 농산물에 관한 동향분석 자료를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의 '동향/전망 - 제철농산물' 페이지를 통해 발간 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KIOST, 연구 수월성·경쟁력 위한 조직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국제협력·경영부문으로 개편  
효율적 조직 구성과 여성인력 확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은 지난 7월 1일부터 대내외 환경에 발맞춘 연구 수월성 확보 및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KIOST는 크게 연구부문, 정책 및 국제협력 부문과 경영부문으로 조직을 개

편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시도했다.

연구부문에서는 임무 중심형·지역 특성 강화를 위한 연구조직 형태로 부원장 산하에 3연구소, 4연구본부, 3부를 설치했으며 정책 및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원장 직속 해양정책연구소와 혁신조정실, 국제협력부를 설치했다.

더불어 경영부문은 신입 원장의 운영 효율화 원칙에 따라 기존 2지원부, 14부·실·팀·단이었던 것을 2부 7실·1팀으로 대

폭 축소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해 여성 보직자를 대거 발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연구 지원 부문에서는 여성 보직자의 비율이 30%에 이르며, 특히 연구 부문에서는 KIOST 최초로 김영옥 책임연구원을 해양환경·기후 연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동안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해양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한국관광공사, 비투비와 전통시장 투어

오늘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서 진행

한국의 전통시장 알리기에 아이돌 그룹 비투비(BTOB)의 서은광, 이민혁이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일 광주광역시 1913송정역시장에서 한류스타 '비투비'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된 인기 7인조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서은광, 이민혁 두 멤버가 전통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교류하고 함께 시장을 체험하는 이벤트이다. 특별히 올해 '2018 전라도방문의 해'를 맞이하



광주 1913송정역시장. /광주시청

여 광주 1913 송정역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에서 온 15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참가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와 연계해 해외 언론인 및 파워블로거 10여명과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기자단 50여명이

광주 1913 송정역 시장 뿐 아니라 전주남부시장, 서울 통인시장, 망원시장 등을 둘러보고,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전국 각지의 20개 시장을 '2018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하여 상품 개발, 해외 박람회 참가, 글로벌 매체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한 외래객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전통시장은 독특한 먹거리, 다양한 쇼핑거리,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 콘텐츠"라며 "이번 스타 마케팅 이벤트를 위시한 해외 홍보 및 상품화, 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의 주력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 HUG 'KBS 동행' 저소득 가정에 후원금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KBS 동행' 출연자들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KBS1 TV 프로그램 '동행'에 소개되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HUG는 지난해부터 'KBS 동행' 출연자를 위한 후원을 실시했다. 지난 1월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삼형제를 위해

임직원들이 주택 개보수 봉사에 참여했다. 'KBS 동행'은 가족의 질병, 파산, 실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김기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은 "앞으로도 HUG는 취약계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9일 여의도 KBS를 KBS1TV 사업국에서 (왼쪽부터) 김기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심광홍 KBS 1TV 사업국장, 정원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이 후원금 전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UG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음력 : 5월 27일

수도권 날씨

29~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페미니즘 광고금지... 아이돌 광고는 허용

### 서울 교통공사

성·정치·종교 등 '의견 광고' 불허

최근 페미니즘 광고, 정치 광고 게재 불허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내에 '의견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무엇을 '의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 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학생겨레하나의 지난달 5호선 광화문역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위를 나란히 걷는 사

진과 함께 '남북이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를 실었다.

5월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이 4호선 숙대입구역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법 촬영 중단 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노원·광화문·종로3가 등 10개 지하철역에 게재됐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지자들이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다시는 지하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반면 아이돌의 생일 축하 광고는 계속 허용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의견 광고'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 팬심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돌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팬들이 하는 광고는 앞으로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서울-평양 본격 교류 대비 싱가포르 NGO에 길을 묻다

### 박원순 시장, 北 창업교육 '조선교류'와 간담회

#### "北, 소매·식음료 스타트업 관심 서울-싱가포르 합동연구 가능"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가운데)이 8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제프리 시 조선교류 대표(왼쪽 가운데) 등 조선교류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의 제프리 시 대표 등 활동가들과 화담을 나눴다.

2009년 창립한 '조선교류'는 북한 현지와 싱가포르 초청을 통해 지금까지 총 43회 이상 기업이 교육 및 스타트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총 13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적으로 좋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가운데)이 8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제프리 시 조선교류 대표(왼쪽 가운데) 등 조선교류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

평가를 받아 미국 하버드대가 선정한 '북한 내 가장 중요한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선교류'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교류'의 창립자인 제프리 시(Geoffrey See)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조선교류에서는 현재 8~9명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2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조직을 재개편했다고 한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와 시민들의 편당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한 달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용이하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양에서는 어떤 스타트업 사업이 인기 있냐"는 박 시장의 질문에 제프리 시 대표는 "소매업, 식음료, 제조업 등에 관심이 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고 기술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매우 약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성 소수자 위한 '퀴어문화축제' 회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제19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개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00년 처음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한국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개 문화행사다. 올해는 처음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13일 개막한다. 14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퀴어 퍼레이드'(도시 행진)가 예정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서울시, 불법대부 의심 70개업체 집중단속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불법대부 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단기 급전(일수) 대출과 꺾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자필서 및 이자율) 준수 여부 ▲계약 적정성 ▲대부광고의 적정성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2~4월)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10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행정지도(3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광고 전단. /연합뉴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현정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 관련 중사자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대부업체 등록 여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 방치된 가판대·구두수선대 318개 정비

### 서울시, 공개입찰로 시설물 매각

서울시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시민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318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268개 시설물을 올 상반기 정비해 창고에 비치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50개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총 318개의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한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사

업'을 실시해, 서울시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올해 5회째인 '특례지원 사업'은 관련기관의 추천과 지난 4월 실시된 공개모집에 따라 총 66명이 신청했으며,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8명에게 시설물을 배정했다.

가로판대대는 19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었다.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돼 오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

례'가 제정됐다.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크, 신문과 잡지 등을 팔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곳곳에 늘어난 편의점과 카드 미사용 및 시설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1990년대 4028개였지만, 이젠 그 수가 1955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배관한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한때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지만, 장기간 방치돼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 보건소 도상훈련경진 실시 서울 25개구서 150명 참가

서울시가 재난대비의료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연다.

서울시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시 25개 구 보건소의 신속대응반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요원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도상훈련 경진대회는 다수상사자 사고현장 시나리오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도상훈련 ▲재난법령 및 비상대응매뉴얼 재난골드벨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의 등 총 3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hik1@

## 중소·벤처 연구자금 최대 10억 지원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실시  
서울시, 내달 10일까지 기업접수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개발이 완료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포함)에 서울 시장 분야와 연계한 현장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참가

희망 기업은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 서울시정과 연계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법령 상 요구 절차를 모두 충족해 추가 인증·승인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은 SBA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서울산업진흥원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적정성 평가와 서울시 소관부서(실증수요부서) 실무협의, 기술·사업성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11월 최종 지원과제를 결정해 실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금융] 금융업계 반려동물 관련 예·적금 상품 출시 06



Life

[유통] 농심 건면 간편식 컵 스파게티 출시 06



# 세계 곳곳에 희망 전하는 천사들의 '나눔 릴레이'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롯데홈쇼핑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기업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높여려는 나눔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기획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롯데홈쇼핑은 업(業)의 특성을 살리면서 임직원과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매일 하루를 '천사데이'로 지정하고, 당일 주문 건당 '1004원'을 적립해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나눔 릴레이'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나눔 릴레이가 여타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화 되는 것은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고객, 임직원, 비영리 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는 것. 나눔 릴레이를 통해 고객은 상품 구매만으로도 기부금 조성에 일조하고, 임직원은 후원 단체 선정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비영리단체는 롯데홈쇼핑의 사회공헌 파트너로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9월에 시작된 나눔 릴레이는 후원 기업 선정부터 기부금 전달, 봉사활동까지 내부 직원들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단순 기부와 같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활동에서 벗어나 봉사활동까지 연계하며 진정성 있는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니세프, 한국해비타트, 엄홍길 휴먼재단, SOS어린이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장애인재단,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 환경재단,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이 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 ◆ 해외 오지마을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지원

지난해 11월에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가수 이승철 씨와 손을 잡고 나눔 릴레이 특별 기부방송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승철 씨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에 학교를 건립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리엔차드 프로젝트'에 기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리엔차드스쿨 4호' 건립에 참여하게 된다. 2016년에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임산부, 신생아들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기부방송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아프리카 차드 만달리아 지역에 총 10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데 쓰여진다. 총 3개 건물, 교실 8개와 교무실, 현대식 화장실, 급수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책걸상 및 교육 기자재 등 부대시설까지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추후 롯데홈쇼핑 사록대 봉사단들은 현지를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에는 네팔 칸첸중가 푸름부 지



롯데홈쇼핑 56, 57, 58호점 작은도서관 개관식.



▲ 롯데홈쇼핑 푸름부 휴먼스쿨 임직원 봉사단 재능나눔 활동.

◀ 롯데홈쇼핑 나눔 릴레이 방송. /롯데홈쇼핑

#### 임직원·고객 참여 유도하는 '천사데이' 프로그램 운영해 당일 주문 건당 1004원 적립

#### 비영리단체와 '나눔 릴레이' 진행 해외 오지마을 초등학교 건립 국내 소외 지역에 도서관 개관

역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롯데홈쇼핑 푸름부 휴먼스쿨'을 완공했다. 교실 11개와 교무실, 현대식 화장실, 급수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이다. 현재 총 42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완공식에는 롯데홈쇼핑 임직원 봉사단이 현지를 방문해 미술 수업과 미니 운동회, 풍선 아트 등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복 입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활동도 진행해 마을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등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 ◆ 국내 장애우 및 문화소외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재능을 살려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 아동을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오디오북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처음 후원과 재능 기부를 시작했으며, 롯데홈쇼핑 쇼호스트와 방송기술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개월에 걸쳐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 50권을 선정하고, 보다 더 실감나는 스토리와 원활한

음성 전달을 위해 전용 녹음시설이 완비된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에서 전직 성우, 아나운서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쇼호스트들이 매주 6시간 이상, 총 50회에 걸쳐 내레이션부터 주인공 모사까지 정성 들여 직접 읽고 녹음을 진행했다. 제작된 오디오북은 CD로 제작되어 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한 수화영상 CD와 함께 국립서울맹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특수학교, 국·공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1000곳의 복지시설에 배포됐다.

그 밖에 구세군과 함께 전국 소외 지역에 도서관과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미혼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굿굿(GoodGood)한 엄마' 캠페인, 전국대학문화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 학생 등 소외아동들에게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재능나눔드림(Dream)' 사업 등 아이들의 꿈을 북돋워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이사는 "2014년부터 매일 진행되고 있는 '나눔 릴레이'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고객,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미래의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동참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외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큰 꿈이 자라는 '작은도서관'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은 인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 시설, 지역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문화, 교육 수준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 아

동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 2013년부터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도서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약 4년 여에 걸쳐 초기에 목표로 했던 전국 모든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 손실이 큰 3곳을 선정해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6호(포항 남구 파란 지역아동센터), 57호(포항 북구 하나 지역아동센터), 58호(포항 북구 양학 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를 동시 개관했다. 현재 건립 중인 2개소가 완공되면 올해 총 6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전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도배, 장관, 누수 공사 등 환경 개선은 물론, 도서보급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만을 이용해 공부방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의 신체에 맞게 제작된 책걸상 및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서 정리 및 공부방 청소 등의 봉사활동과 함께 사진촬영, 종이 접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등 재능 나눔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홈쇼핑과 구세군이 함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나면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 나눔센터, 아동센터 등 단체에서 시설 관리를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 운영 위원회를 꾸려서 관리하고 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